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922호

한국교회연합, 천환 목사 신임 대표회장 추대



한교연 제15회 총회가 4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신임 대표회장 천환 목사가 한교연 기를 흔들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김요셉 목사가 축사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4일 제15회 총회 개최

천 신임 대표 “한국교회 연합 마중물 될 것”
“대표 보수 연합기관 되도록 변화 이끌겠다”
총회 선언문 “주님 증거하는 복음선교 앞장”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4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총회를 열고 천환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예장 고신 증경총회장)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천 신임 대표회장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대표회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제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어느 때보

다 무겁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믿는다”며 “믿음과 같이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건국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함께 밀알이 되어 주님 앞에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되기를 갈망한다”며 “마음을

열고 오직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겠다. 한국 교회의 새로운 연합을 위한 마중물로 쓰임발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천 신임 대표회장은 후보 소견서에서는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신(新) 자유주의 신학의 오염이 한국교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교연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보수 연합기관으로 서도록 선두에 서서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또한 “세계적인 복음 기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교회와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연합하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매우 중요한 본분”이라며 “회원 교단·단체가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해 더욱 친밀히 소통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한국교회에는 온갖 불건전한 신학 사조가 침투하고 있다”며 “복음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아카데미를 세워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선교 자원을 발굴, 양성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밖에 한교연은 이날 김바울 목사(대한예수교도립교회연합), 장시환 목사(예장 올리브), 이영한 장로(한국기독교연

차별금지법 등 모든 쟁점적 이념 결사반대 △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 신(新) 자유주의 신학 배역 등을 선언했다.

한편,

총회에선

감사 및 재정 보고와

공로·축하패 증정이 있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안을 비롯해 임원·감사와 상임특별위원장 및 법인 대표이사 인준 등

의 사항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교연은

“교회의 하나님 됨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임을 깨달아 교단의 크기, 신학적 배경을 초월해 서

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한 형제로서 주

님이 분부하신 사명의 짐을 기꺼이 함께

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날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김요셉 목사가 축사하기도 했다. 그는 천환 신임 대표회장에 대해 “개혁주의 입장에서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라고 증거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교총 신임 대표회장에 김정석 기감 감독회장 추대

4일 100주년기념관서 열려…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의 건 부결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한교총)이 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제9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김정석 목사가 추대됐다. 공동대표 회장은 김동기 목사(예장백석 총회장·홍사진 목사(예장총회장)·정경인 목사(예장 대신 총회장)가 선출됐다. 신임 사무총장은 김철웅 목사(예장통합)가 선임됐고, 범인 사무총장은 전 사무국장 정찬수 목사(기하성)가 연임됐다.

이는 제8·5차 상임회장회의와 제8·1차 임원회 결의에 따라 대표회장과 신임 공동대표회장 등 신임 임원단이 내정된 상태였고, 이날 정원 320명에 총 출석 243명(출석 187명·위임 56명)으로 성수된 한교총 정기총회에 상정돼 공식 결의됐다.

신임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는 취임사에서 “한국교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부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교단과 교회를 넘어 이 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책임이 한교총에 있고, 함께 더불어 힘을 모아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의 건에서 제4조 ‘사업’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두고 격론이 일었다. 개정안은 사업 수행을 위해 산하에 별도 법인을 둘 수 있고, 운영방식은 운영세칙에 정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종래 일부는 법인 설립 예산 분배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결국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의 건의 가부를 묻는 표결이 이뤄졌고 총 출석 220명(164명 위임 56명)에 108명 찬성으로 정족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위의 것이 부결됨에 따라 임원선임규정 제5조 ‘대표회장 후보군’ 내용의 정관 개정안도 역시 부결됐다. 현재 한교총은 회원 교단을 규모별로 가나다라 군으로 나눠 대표회장과 공동대표회장직을 안배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군은 2년·나군은 3년·다군과 라군은 4년 이내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규정에서 △군은 7천 교회 이상 교단 △나군은 2천 5백 교회 이상 교단 △다군은 1천 교회 이상 교단 △라군은 1천 교회 이하 교단이었는데, 이중 △가군은 9천 교회 이상 교단 △나군은 3천 교회 이상 교단으로 각각 개정됐다. 상위 두 개 군의 기준을 상향했고, 다군과 라군은 그대로 두었다. 이에 따라 가군은 예장 합동·통합·백석이, 나군은 기감기하성기감기성이 속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과

같다. 다군엔 예장 고신개혁합신대신개혁개신백석대신과 예성이 속해 있다.

아울러 기존 규정에서는 대표회장의 자격을 ①회원 교단의 추천을 받은 현직 교단장이나 ②교단장을 지낸 자(1~4회기 공동대표회장 포함)로 명시했으나 ②를 삭제하고 현직 교단장으로만 한정했다.

이 밖에 예장개혁종로(총회장 박만진 목사), 예장고려(총회장 허호성 목사), 예장합동(총회장 오표자 목사) 총회의 하임 건이 통과돼 한교총은 39개 교단과 6만 4700여 개 교회를 우수하게 됐다.

앞서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전임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예장합동)는 “연합은 승리의 열쇠이자 복음의 문을 여는 결정체”라며 “연합은 진리를 지키는 힘이며 한국 교회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노형구 기자



김정석 신임 대표회장©노형구 기자



신구 임원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노형구 기자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예타 통과(50분 예상)
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李대통령, ‘北억류 한국인’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

외신 기자회견서 “오래전 일이라 정보 부족… 상황 더 알아볼 것”

선교사 3명 등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억류 국민 가족 “대통령 발언 마음 아파”

김건 의원 “국민 생명·안전, 대통령 임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라고 답했다.

미국 NK 뉴스 기자는 “약 10명에 달하는 한국 국민이 북한에 잡혀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일본 국적자는 모두 풀려났다”며 이들의 석방을 위한 대책 등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위성락 안보실장에게 “한 번 얘기해 보시라”며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것이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위 실장은 “들어가서 못 나오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알리지 않은 다른 경위로 억류된 불들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억류 시점에 대해선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이 대통령은 거듭된 기자의 질문에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며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는 김정숙·김국가·최춘길 등 선교사 등 우리 국민들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숙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이들의 억류 사실을 “처음 듣는다”고 한 대통령 발언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런데 억류자가 있다는 기본 사실조차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북한에는 우리 국민 6명이 억류 중이다. 이들은 2013년~2016년 사이 억류됐다”며 “이중 3명은 선교사다. 선교사들은 북중 국경 지역에서 탈북민

을 돋다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을 받았디”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억류자 문제를 북측에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으나 생사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선진국이라면 이런 상황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2009년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두 명을 구출하기 위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방북했고, 2010년에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억류 미국인을 데려온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억류자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교자연 “종교재단 정치개입 언급, 정교분리 취지와 달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둘러싼 논란과 관련 성명 발표



교자연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며, 일본의 종교재단 해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교자연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 회의에서의 발언은 정교분리의 법적 의미, 통일교의 법적 지위, 일본의 해산 명령 근

거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대통령의 언

급은 역사적·법적 사실과 상당한 고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먼저, 정교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원칙은 흔히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해되지만, 법으로 최초 제정된 나라는 미국”이라고 “1786년 토머스 제퍼슨이 주도해 제정된 「버지니아 종교자유법(Virginia Statute for Religious Freedom)」이 그 출

발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강요할 수 없고, 종교 활동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며, 앙심과 신앙은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고 했다. 따라서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종교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아

니다”며 “한국 정치권 일부가 사용하는 해석은 정교분리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둘째로,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은 ‘정치 관여 때문이 아니다. 인권침해사기 성 모금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근거’라

며 “일본이 2023년 통일교구 세계평화통일기장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했던 이유는 정치자금 제공이나 정치 개입과는 전혀 무관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여 년간의 피해 사례와 판결문을 기초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 종교법인법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중대·조직적 위법행위’

에 해당하며, 종교법인의 법인격 박탈 사유”라며 “즉, 일본의 해산 명령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정교분리와도 무관하며, 종교재단이 정치를 해서 해산됐다는 식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교자연은 “셋째로 한국 통일교는 ‘종교재단이 아니라 ‘종교단체’다. 대통령의 발언은 법적 지위에 대한 오해”라며 “대한 민국에서 통일교는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비법인 사단)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고신통합 같은 종교교단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 산하에 여러 재단법인사단법인학교법인이 존재할 뿐, 통일교 자체가 ‘재단법인’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통일교 같은 종교재단이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식의 발언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넷째로 한국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은 ‘개별 범죄일 뿐 일본처럼 해산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 통일교가 과거 여야 정치권(국민의힘·민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면, 이는 다음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다음은 네 가지 법 적용 대상 목록. ▶정치자금법▶뇌물죄▶부정청탁금지법▶정당법 관련 조

항:

교자연은 “다섯째는 종교개혁 전통 속 존 낙스의 시대적 배경이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지도자 존 낙스(John Knox, 1514~1572)는 칼빈주의 전통을 스코틀랜드에 정착시킨 인물로, 종교개혁 2세대 개혁가다. 그의 활동 역시 국가권력의 교회 간섭과 싸운 역사였다”며 “정교분리는 결코 ‘종교의 정치적 발언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하게 살아남기 위한 원칙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종교재단의 정치개입은 정교분리 위반”이며 일본처럼 해산을 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다음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1.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 정교분리는 국가의 종교 간섭 금지 원칙이다.

2. 일본 통일교 해산 근거와 완전히 다른 사안을 연결하고 있다. 일본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와 사기 범죄 때문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3. 통일교의 법적 지위를 종교재단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다. 통일교는 종교단체이며, 해산 사유 또한 법 기준과 맞지 않는다.

장지동 기자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퍼펙트 슬림뷰:
베젤리스 설계

클리어 엣지뷰:
논슬리콘 디자인

멀티플 화이트뷰: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창호 부문 최다 1위(18회)

LX Z:IN

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대응 논란 고조

여성·생명 인권단체, 조직적 2차 가해와 책임 회피 정면 비판

여성·생명 인권단체 (사)위민앤팘يل리(상임대표 이봉화)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2차 가해와 책임 회피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을 훼손한 장 의원과 민주당 보좌진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단체는 “장경태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장 의원이 여성 비서관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의원이

11월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데이터폭

력 사건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책임 회피를 넘어선 “노골적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위민앤팘يل리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의 핵심이 피해자 진술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데 있음에도, 장 의원이 자신의

을 통해 장 의원이 스스로 강조해온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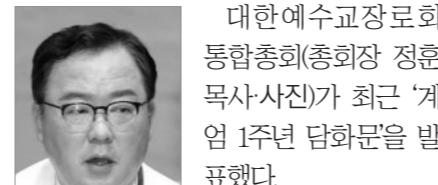
지감수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위민앤팘يل리는 성폭력 문제의 본질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데 있으며, 국회의원과 여성 비서관 사이의 위계 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으로 더욱 높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국회의원이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단체는 장 의원에게 정치적 물타기와 피해자 혐오를 즉각 중단할 것,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기관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소속 보좌진의 조직적 2차 가해에 대해 공식 사과와 명확한 책임 조치를 촉구했다.

위민앤팘يل리는 “준강제추행 의혹을 받는 현직 국회의원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지속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피해자 보호 원칙이 확립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예장 통합, ‘계엄 1주년 담화문’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정훈 목사·사진)가 최근 ‘계엄 1주년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회는 “12·3 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가 경험한 불안과 갈등을 깊이 인식하며, 교

회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총회는 “비상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지난 1년의 경험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가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함의 중요성을 확 인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인간 존엄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했다.

총회는 “계엄 전후로 발생한 갈등과 분열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며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죄와 배제가 아닌 경쟁·중재·공감의 자세를 가지고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미래목회포럼 제22차 정기총회… 황덕영 대표·이상대 이사장 연임

다문화·기후환경·중독사역 등 중점 추진…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 확대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사단법인 미래목회포럼이 4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를 대표로, 서광교회 이상대 목사를 이사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두 인물은 지난해에 이어 각각 대표와 이사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인사말을 전한 황덕영 대표는 “내년 한 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뜻을 잘 붙잡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 어가는 제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힘 있게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와 하나님께 기뻐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는데, 미력하지만 함께 배우며 섭기겠다”고 전했다.

이상대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4년째 이어가게 되었다. 책임감이 크다”며 “2026년 다음 세대, 미래 목회 공적 책임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더 겸손하고 단호하게 섭기겠다”며 미래목회포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4회 ‘올해의 기자상’과 고향교회 수기 당선작 시상식도 진행

됐다. 제4회 ‘올해의 기자상’에는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가, 고향교회 수기 당선작에는 구암교회 서창범 목사가 당선 됐다.

아울러 김학중 목사(꿈의교회)가 이사로 충원되었고, 새로 가입한 신입회원으로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광은교회 김신형 목사, 하늘비전교회 장종만 목사가 중앙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신형 목사는 “한국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고 섭기는 겸손한 종이 되겠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 배우겠다”고 말했고, 장종만 목사는 “저 또한 선배 목사님들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배워서 깨달을 수 있는 후배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포럼은 이날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를 향해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역으로 다문화(이주민) 문제, 기후환경 대응, 중독 사역을 꼽고 해당 분야를 중점 과제로 삼아 각 위원회 중심의 포럼 개최와 전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공공성강화위원회와 평화통일위원회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미래목회포럼 제22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왼쪽부터) 대표 황덕영 목사, 이사장 이상대 목사 ©장지동 기자

을 강조했다.

오 목사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언급하며 “한국교회가 잘되기를 모두가 바리지만, 총회 현장에서는 지역주의에 간한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았다”며 “지난 9월 총회에서 드러난 여러 모습 속에서 진리보다 지역적 이해가 앞서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샘법이 앞서는 총회가 아니라, 신실한 목회자들에 의해 이끌어가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며 “총회 일은 지역교회 담임목회보다 훨씬 쉽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문제가 없다. 자기 세력과 이름을 드러내려 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신 총회에서 제기된 설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손현보 목사가 설교자로 세워졌는데 도망갈리 없다”며 “동역자라면 교단을 초월해

설교할 기회를 주고, 이후 설교의 내용과 강도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오 목사는 정교분리 논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정교분리를 언급했지만, 이는 교회가 정치를 방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며 “목회자의 설교는 성도들의 가치관과 투표 기준을 제시하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정교분리를 상호 불간섭주의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고 말했다. 모든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목회자가 강단에서 정치적 사안을 말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교회는 거룩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이다. 목회자들은 서

로 대립하지 말고 거룩한 연대를 이루어 야 한다”고 덧붙였다.

곁으로 오 목사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국민을 갈라치지 않고, 마음을 밝히는 정치에 힘써야 한다”며 “목회자는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세워 가야 한다. 정치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전했다.

축사 순서에서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성진진 총장과 CBS 나이영 사장이 전했다. 정 총장은 “무리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좋은 무리와 함께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 미래목회포럼이 지금 22년 차에 들어섰다. 한국교회의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임으로, 좋은 무리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함께 손잡고 축소사회에 한국교회를 견인해 가는 일꾼들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나이영 사장은 “미래목회포럼이 앞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중심을 잡아 미래를 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며 CBS 또한 뒷받침해 열심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반영해 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영상을 통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신촌성결교회 이정의 원로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장지동 기자

“위정자들에게 복음이, 한국에 하나님 나라가” 2025 홀리위크 시작

오는 6일 새벽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2025 홀리위크(Holy Week)가 진행되고 있다. ©서기청

설기는 김성훈 선임비서관은 “국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구하는 기도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1948년 제헌국회에서 이운영 의원이 드렸던 기도문을 나누며 기도했다.

서기청 대표인 최상일 목사(은정감리교회)는 “국회의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본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또한 형식적인 기독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바른 분별력과 용기를 가지고 헌신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예배에 참석한 최이슬 청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도 이렇게 많은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홀리위크의 방송팀으로 설기는 이하늘 간사는 “오늘 공교롭게도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집회들이 많았던 하루였지만 하나님은 그중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든 회중들이 임재를 경험하고 벽찬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본 광고는 시가지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돌봄 수요 급증… 교회가 역할을”

기독교한국침례회, 돌봄목회 세미나 개최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수원중앙교회 통합교육 및 복지재단 사역을 소개하며, “교회가 복지를 하는 이유는 오직 영혼구원에 있다”며, “진정한 영성은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은 “돌봄통합지원법은 복지노동·산업건설 등 정부 부처 간 협조와 철저한 지방분권이 함께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고난도 정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변화와 교회 역할을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최인수 목사)가 최근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 고명진 목사)에서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정책과 돌봄목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교회의 역할과 돌봄목회 사역 적용모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윤배근 목사(사회부장, 꿈이있는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최인수 총회장(공도중앙교회)은 “돌봄사역을 시도하는 교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지속적으로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기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장현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루교회 목사)는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애 주기 전 영역에서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각해질 상황에서 교회 공간 활용의 확대(국도교통부령 공포, 건축법 시행

전킨·드루 선교사의 130년 발자취… 군산선교역사관 개관

전북 군산 구암동에 호남 지역 선교와 근대사 형성의 중요한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새로운 문화·신앙 공간이 문을 열었다. 군산선교역사관이 2일 정식으로 문을 열며, 19세기 말 호남에 기독교 학교·교회·의료의 기초를 놓았던 윌리엄 전킨(전위령)과 알레산드로 드루(유대교) 선교사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조명한다.

전킨기념사업회(이사장 장철희 목사)가 추진한 이번 역사관은, 1893년 군산에 입국해 지역 여성 교육의 새 장을 연 전킨 선교사와 군산 최초의 병원을 설립해 의료 사역을 펼친 드루 선교사의 흔적을 집약한 공간이다. 두 선교사가 남긴 교육·의료·사회운동의 역사적 공헌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워졌다.

역사관은 연면적 999㎡,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외관은 전킨 선교사가 창설한 멘본단여교의 양식을 모티브로 재현해 건축적 의미도 담았다. 내부에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을 비롯해 교육 공간, 체험실, 휴식 공간 등이 마련돼 교육·복음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고 사회 변화를 견인했는지를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다.

역사관 자문을 맡은 최은수 미국 GTU 연구교수는 “군산선교역사관은 한국 선교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해, 일치의 정신을 재발견하게 하는 장소”라며 “이 공간이 다음 세대까



군산선교역사관 ©전킨기념사업회

의 옛 모습을 담은 필름 아카이브, 선교사들이 실제로 갖고 다녔던 망원경·가방 등의 유품이 처음 공개되며,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당시 선교 현장의 질감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관람객들은 전킨·드루 선교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호남 지역에서 교육·복음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고 사회 변화를 견인했는지를

군산시는 이번 개관을 계기로 철길마을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선교문화도시 역사 콘텐츠를 결합한 지역 프로젝트를 확장할 계획이다. 군산선교역사관은 앞으로 지역을 넘어 한국 근대 기독교사의 중요한 아카이브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노형구 기자

동아제약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증별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생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코헨대학교, 박영민 목사 신임 부총장 임명

123개국 글로벌 신학교
네트워크 총괄



오른쪽이 코헨대학교 설립총장 강신권 박사 부부. 박영민 목사(왼쪽)에게 취임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교회 측 제공

코헨대학교(Cohen University)는 서울 김포영광교회 담임 박영민 목사를 신임 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임명식은 설립총장 강신권 박사 부부가 한국을 방문해 서울 김포영광교회 본당에서 임명패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예식은 유튜브 생중계로 교수진·동문·재학생이 참여했다.

코헨대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학교법인 승인과 미국 연방정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 신학교로 성경 원어 교육과 히브리어 사고를 바탕으로 ‘정통 보수 신학’과 ‘세계선교신학’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창립자는 NKJV 번역위원장을 역임한 게리 코헨 박사와 한국계 조직신학자 폴강 박사다.

1938년 설립된 코헨대학교는 1987년 정

식 인가 이후 선교 비전을 중심으로 123개국에 분교를 설립했고, 500여 명의 교수진과 1만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LA 인근 본교와 바베어 제2캠퍼스를 기반으로 온라인세미나·캠퍼스 사역을 통합한 교육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박영민 부총장은 취임식에서 “성경 중심 교육은 하나님의 사고 구조를 회복하는 사명”이라며 “전 세계 분교를 종

괄하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첫 분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지도

자 양성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박 부총장이 코헨대학교의

성경 교육과 세계선교 비전을 확장할 것

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장지동 기자

오병이어교회 김수봉 목사, 목회 40주년 기념 감사예배

부흥회 4,000회 돌파… “반전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셨다”

충남 서산 오병이어교회에서 김수봉 목사의 목회 40주년과 부흥회 4,000회 돌파를 기념하는 감사예배가 열렸다. 예배에는 스승인 피종진 남서울중앙교회 원로목사와 성도들이 참석해 사역 여성 목회자들의 모범이 되어 달라”고 했다.

감사 인사를 전한 김수봉 목사는 “모든 반전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환경 속에서 공부를 결심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교회 측 제공

하고 서울에서 공장 노동과 야간 중학교 과정을 통해 삶의 변화를 시작한 경험을 회고했다.

목사 안수 후 세 차례 개척과 성전 건축 과정에서 위기를 겪었고, 40일 금식기도 중 시신경 마비로 실명 위기를 경험했으나 기도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1986년 첫 부흥회 취소 후 수요예배 치유 사건을 계기로 부흥사 사역이 본격 시작됐으며, 2002년 교통사고 후 1급 척추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회복돼 사역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후 오산리기도원 부흥회를 계기로 사역이 재개돼 현재까지 4,032 회의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참석자들과 목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반전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배는 참석자들의 축복 속에 마무리 됐다. 최승연 기자

제자광성교회, ‘2026년 제6회 아둘람미래세대 장학생’ 모집 시작

학기당 500만원 지원

될 수 있으며, 타 기관 장학금 수혜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2026년 1월 중순, 교회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된다. 이 후 2차 면접은 2026년 1월 17일 진행되며, 면접을 거쳐 최종 장학 생을 선발한다.

교회는 “장학금 수혜 후 장학회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불참하거나, 제출 서류 허위 작성이 확인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제자광성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형구 기자

강진읍교회 항일·민주화운동 조명 학술대회 개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부터 지역 민주화운동까지 역사적 역할 재조명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과 전남 서남부 민주화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온 강진읍교회의 역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강진군은 3일,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강진읍 강진읍교회 예배당에서 ‘고난 속에 끈 믿음, 지역 속에 뿌리 내리다 – 강진읍교회와 강진 지역사회’를 주제로 제13회 강진 역사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섯 가지 발표로 구성됐다. 한규무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강진의 신교육과 강진읍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진 지역 근대교육의 형성과 교

의지를 보여줬고, 다수의 교인들이 재판과 투옥을 겪었다. 해방 전까지 교회는 일본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했다. 해방 이후에는 1960~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사회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강진읍교회의 신앙, 교육,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지역 봉사까지 공동체와 함께해온 발자취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라며 “강진읍교회는 근대 교육의 문을 열고 항일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한 강진의 소중한 역사”라고 말했다.

장지동 기자

북부 나이지리아서 목사 등 최소 20명 납치… 11월 한 달 400명 넘어

학교·교회·가정 동시 노린 연쇄 납치 사태… 미국도 “종교적 폭력 우려” 압박 강화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최근 납치 사건이 잇따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DI는 11월 마지막 주말에만 두 건의 공격으로 목사와 아내, 예배 중이던 신자들, 그리고 신부와 들플리 등이 잇달아 납치되는 등 최소 20명이 무장괴한들에 게 끌려갔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과 AFP 등 국제 언론은 연속적인 공격이 여성과 어린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알려진 사건은 코기(Kogi)주에서 발생했다. 무장 조직이 주일예배 중

이던 체루빔·세라핌 교회(Cherubim and Seraphim Church)를 습습해 목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정확한 숫자가 확인되지 않은 예배자들을 납치했다. 그 전날 밤 소코토(Sokoto)주에서는 신부, 들플리, 아일을 데리고 있던 젊은 여성 등 여러 사람에게 무장 괴한에게 붙잡혀 갔다고 보도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11월 19일 서부 나이지리아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는 남녀 학생 300여 명과 교사 12명이 대규모로 납치되는 사건도 있었다. 학생들은 10세에서 18세 사이로, 일부는 군과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도주하거나 구조됐지만 상당

수는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11월 한 달에만 400명 이상이 납치됐다”며 심각한 안전 위기를 경고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납치 조직이 요구한 막대한 몸값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독교협회(CAN)는 이번 사태를 단순 범죄가 아닌 종교적 공격으로 규정했다. 대니얼 오코(Daniel Okoh) CAN 회장은 “북부 취약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반복적 공격 패턴이 분명 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해온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



나이지리아 육군이 보르노주 아스카라/우바 지역의 무사 구역에서 보코하람/ISWAP 테러 조직에 의해 납치된 10대 소녀 12명을 구조했다. ©Nigerian Army

령은 잇따른 납치 사태가 국가적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계획돼 있던 G20 남아공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했다. 그는 “모든 나이지리아인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

는 이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군정은 11월 18일 또 다른 교회에서 납치된 예배자 38명을 구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나이지리아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미 국무부 아프리카국의 조너선 프랫(Jonathan Pratt) 수석 관계자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이지리아에서 반복되는 기독교계 대상 공격은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라며 재제와 국방부의 대테러 지원 가능성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용 가능한 모든 외교안보 수단을 동원해 나이지리아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나이지리아

아를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미국이 종교 박해 국가에 적용하는 가장 강력한 분류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내부에서는 폭력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는 종교적 동기가 뚜렷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나이지리아 전역의 복잡한 무장 세력과 치안 실태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

CDI는 최근 연속된 납치공격은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반복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으며 여전히 수백 명이 납치범의 손에 남겨져 있어 사태의 장기화가 점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세르비아 교회의 중독 회복 사역, 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다

목회자와 지역교회가 이끄는 재활센터, 중독·노숙인 회복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세르비아 제2의 도시 노비사트의 거리에서 삶을 잃어가던 이들이 다시 한 번 인간다운 일상을 되찾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세르비아 기독교 공동체가 운영하는 ‘메인보우 재활센터’는 악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노숙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들에게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하는 중심이 되고 있다. 세르비아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한 약 6,000명의 복음주의 신자들 가운데 이 사역을 이끄는 주축에

는 듀산 베레지(일명 ‘베라 목사’)가 있다.

그는 “중독의 힘을 잘 안다”며, 매일같이 이 유혹과 싸우는 삶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센터의 목표는 중독자들이 더 이상 악물이나 술에 대한 욕구 자체를 느끼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인간적의 자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상처와 공허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가능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세르비아의 악물 문제는 1998년 코소보 전쟁 이후 더욱 악화됐다. 아프가니스

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마야 밀매 루트가 세르비아를 지나며 혼란이 저기로 대량 유입됐고,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거리에서 하나님의 ‘질병처럼’ 번졌다. 베라 목사는 많은 친구들이 이 시기 중독으로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초기에는 이들을 크로아티아 등 외부 재활센터로 보냈지만,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면 연결망이 없어 재차 중독에 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베라 목사는 이끌던 교회는 2008년 자체적인 재활센터 설립을 결정했다. 최초에는 7명의 중독자를 돋는 것이 목표였다. 이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켰고, ‘틴 첼린저’ 모델을 참고해 영적정서적 생활적 회복을 함께 다루는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는 악물 중독자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등 다양한 형태의 중독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최근 세르비아 사회 내 혼란으로 인해 사용률이 낮아졌지만, 대신 코카인, 부프레노르핀(서류特斯), 합성 혼란, 메타돈 등 다양한 악물의 혼합 중독이 늘어나 회복 과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센터는 도시 내 건물 한 곳과 근교 마

을의 또 다른 건물에서 운영되며, 모두 남성 중독자들을 위한 시설이다. 여성 재활 시설도 검토했으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현재는 타 기관의 도움을 연계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중독자 재활뿐 아니라, 별도의 ‘핸드 포 어 프렌드(Hand for a Friend)’ 프로젝트를 통해 노숙인을 돋는 사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역은 단순히 음

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거리에서 고립된 이들이 ‘다시 사람 대접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중심으로 운영된다.

CDI는 센터 사역에서 늘 재정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은 전혀 없으며, 전체 운영비의 약 75%만 자체 사업으로 충당되고 있다. 교회는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가정용 운반·이동 서비스, 농업 장비 대여 사업 등 다양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세르비아에서 벌어지는 학생 시위와 정치적 불안정은 지역 경제를 흔들어 사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센터를 거쳐 간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어떤 이는 크로아티아에서 교회 개척자가 되었고, 또 다른 이는 의사가 되어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도시에 재활센터를 세울 계획이며, 특히 중독으로 전단되어 전 세계에서 삶의 리듬과 기능을 잃어가는 이들을 돋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최승연 기자



듀산 베레지(일명 ‘베라 목사’, 오른쪽) 목사와 재활센터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와 치료 중인 환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CDI

파키스탄, 기독교인 중심의 위생 노동자 보호 위해 첫 헌법 청원 제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 집단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위생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법적 조치가 추진됐다고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파키스탄 국가인권위원회(NCHR)는 최근 신설된 양법원법(FCO)에 헌법 청원을 제출하며, 수십 년간 수많은 사망 사고를 초래해 온 ‘수작업 하수도 청소’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특히 기독교인과 한두교인 등 소수 종교계층 집단이 대다수를 이루는 위생 노동자들이 직면한 구조적 차별과 위험한 작업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를 법적으로 제기한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11월 21일, FCC 아민우дин 칸 대법원장을 포함한 3인 재판부는 첫 심리를 진행했다. NCHR 측은 위생 노동자들이 보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하수도에 투입되는 현실을 설명하며, 이는 생명권·존엄성·평등권·안전한 노동 환경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NCHR은 “파키스탄 내 위생 노동은 여전히 가장 위험한 직종 가운데 하나이며, 반복되는 질식사와 감전사, 독성 가스 노출은 모두 예방 가능한데 죽음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NCHR이 최근 발표한 ‘파키스탄 위생 노동의 위험성’ 조사보고서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사망·부상 사례가 다수 기록돼 있다.

시민단체 스위피스 아 슈퍼히어로즈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파키스탄 19개 지역에서 최소 84명의 하수도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심지어 심리 하루 전날에도 신드주에서 한 노동자가 배수구 작업 중 질식해 사망한 사실이 법정에서 보고됐다.

NCHR의 법률대리인 이크발 나사르 변호사는 “이 비인간적 노동 관행은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즉각적인 정부 개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물하수도 공사, 폐기물 관리 기관, 각 주 정부 등에 공식 통지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

지난 7월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를 갈라보면 그들도 피가 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위생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도 조직적 차별과 위험한 노동 환경, 종교·캐스트 기반 배제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생적 채용 공고 약 300건 가운데 상당수가 노골적으로 ‘비무슬림 지원자’ 또는 ‘하층 캐스트’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앰네스티는 정부 기관 다섯 곳을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들이 가장 낮은 등급의 위생 노동직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정규직 전환에 거부된 재 계약직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회보장 혜택과 안정적 급여, 법적 보호에 제도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위생 청소부의 모습. 이들은 보호 장비 없이 업무를 수행하며, 법적 노동 보호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기독일보 DB

다. 지난 7월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를 갈라보면 그들도 피가 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위생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도 조직적 차별과 위험한 노동 환경, 종교·캐스트 기반 배제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생적 채용 공고 약 300건 가운데 상당수가 노골적으로 ‘비무슬림 지원자’ 또는 ‘하층 캐스트’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앰네스티는 정부 기관 다섯 곳을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들이 가장 낮은 등급의 위생 노동직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정규직 전환에 거부된 재 계약직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회보장 혜택과 안정적 급여, 법적 보호에 제도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B E Y O N D
ENTERTAINMENT
E L E V A T I N G
E X C I T E M E N 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단,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펠리스친구

카카오톡 펠리스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톡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갓스윌연합교회, 이희철 원로목사 추대 및 제7대 강현규 담임목사 취임

정재호 감독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 의지하는 교회 되길”

갓스윌연합교회(God's Will Alliance Church)가 지난 11월 30일 오후 3시 30분, 아름다운 리더십 교체를 알리는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지난 20년간 교회를 듣는 히 세워온 이희철 목사의 40여 년 목회여정을 기리고 제7대 담임으로 부임한 강

현규 목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C&MA 한인총회 감독 정재호 목사는 마태복음 3장 16-17절을 본문으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며 영적 계

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재호 감독은 설교를 통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목회와 사역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절저히 성령의 능력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후 관계자들과의 기념촬영. ©교회 측 제공

가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 제7대 강현규 담임 목사는 취임 서약을 통해 목회자로서의 결단을 공포했다. 강 목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상을 본받아 신성한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다”며 “말씀

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 무리의 본이 되며, 겸손히 성도들을 섭기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성도들 또한 강 목사를 하나님께 보내신 사자로 알고 순종하며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서약했다. 이어 정재호 목사가 종회를 대표해 강현규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했다.



강현규 목사(오른쪽)가 갓스윌연합교회 제7대 담임으로 취임하고, 이희철 목사(왼쪽)가 원로 목사로 추대됐다. ©교회 측 제공

새로 취임한 강현규 목사는 한신대 신학대학원(M.Div)과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D.Min) 과정을 마쳤다. 그는 나성동산교회 찬양목사, 좋은친구들교회 담임 등을 역임했으며, 미주기독교방송 조선 리 목사

뉴스 진행 아나운서 및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KCMUSA) 사업본부장직, 주님미디어 대표를 수행하며 목회 현장과 미디어 사역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한편, 이날 예식은 김영호 목사(LA 소망교회)의 예배인도후에 이창남 목사(주님의 손길교회)의 인도로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이어진 축하와 권면의 시간에는 고주얼 목사(LA 비전교회)의 인도로 최병수 목사(인랜드지역 은목회 회장)가 축사를, 강요섭 목사(리사아 선교사·말라위 대학 종교교수)와 김기수 목사(샌디에고 벤엘ennon 교회 원로)가 각각 목사와 성도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의 앞날을 축복했다. 남가주한신동문 목회자회와 소프라노 김미진 등의 죽가후에 강현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조선 리 목사

GMC 한미연회, 20~40세대를 위한 커넥트 컨퍼런스 성료

GMC 한미연회가 주최하고, 연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커넥트 컨퍼런스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달лас 중앙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감리교회(GMO)가 추구하는 ‘성서적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 비전 아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최상훈 목사(화양감리교회)가 주강사로 섭기는 가운데 은혜롭게 성료되었다.

글로벌감리교회는 기존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동성애자 목사안수와 동성결혼을 교단법으로 허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키는 감리교회 간증운동에서 시작된 새 웨슬리안 운동이다. 또한 한미연회는 말씀의 권위와 웨슬리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한인미민교회의 전국적 네트워크이며, 성서적 결혼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바탕으로 30~40세대 가정사역을 섭기기 위해 커넥트 컨퍼런스를 2024년 시작했다. 컨퍼런스는 한미연회의 비전을 따라 2024년 ‘복음본색’을 주제로, 2025년 ‘기도시대’ 주제로 말씀과 기도로 한인교회와 다음세대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한인 미민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커넥트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성서적 거룩함에 기반한 영적 정체성과 말씀중심의 세계관이 도전하는 성경적 교회공동체가



컨퍼런스를 기념하면서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개인과 가정의 믿음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하나님의 DNA>,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 한국교회 청/장년사역 리더 최상훈 목사(화양감리교회)가 주강사로 섭겼으며, “율법이 아닌 은혜에서 출발하는 영적교제로서 기도”와 “하나님의 영적 정체성을 담아내는 새사람의 영적 정체성을 바로 하는 신앙자세”에 대해 큰 은혜를 끼쳤다.

영어권 어린이 집회는 시카고중앙진리교회(이신애 사모) CM사역팀이, 청소년집회는 Won D. Kim 목사(RockSpring Church, DCMC), Mark Vowell 목사(First Frisco GMC), Brian Choi 목사(Bethany GMC)가 강사로 섭겼으며, 가정예배 세미나(백은실 사모)와 크리스천 청년들의 연애, 신앙, 결혼(김기리/문지인 부부) 특강

과 각종, 소그룹 모임 등도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부모와 청장년, Youth, 영, 유아 자녀들이 함께 참여, 기도한 이번 컨퍼런스는 미민교회 온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는 영적 커넥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말씀, 기도, 정체성 회복’을 중심으로 진행된 컨퍼런스의 폐회예배는 가정별 암수기도로 마무리되었으며, 커넥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목회자들이 한 가정, 한 사람을 위해 암수하며 기도하는 시간 동안, 참석자들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 컨퍼런스 기간동안 온 세대가 함께 드린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다시 세우도록 부르신 성도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었다. 김민선 기자

‘이튼 산불’ 아픔 딛고 희망의 빛 켠다 6일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개최

단순한 축제 넘어 ‘회복과 단결’의 장으로... 오후 6시 메인 무대서 점등

화마가 훤히 들고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의 굳건한 회복을 알리는 희망의 불빛이 켜진다. 주최 측은 오는 12월 6일 알타페라나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점등식(Annual Lighting Ceremony)과 윈터페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여느 해와 달리 지역 사회에 매우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올해 1월 ‘이튼 산불(Eaton Fire)’로 인해 지역

될 전망이다.

행사 당일 ‘윈터페스트(Winterfest)’는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점등식은 오후 6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올해는 전통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바로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단결(Unity), 그리고 희망(Hope)에 관한 것”이라며, “하나 된 공동체로서 주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망자의 날 (Día de los Muertos) 행사 참가

World Mission University(총장 임성진 박사)는 2025년 10월30일 개최된 제4회 Día de los Muertos 행사에 참석

하여 RN-BSN 프로그램과 신규 ADN (Associate Degree in Nursing)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널리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Alta Hospitals 및 Southern California Hospitals의 CEO 오마르 라미레즈(Omar Ramirez)와 직접 만나 WMU 간호학과의 비전과 프로그램 강점을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

간호 인력 양성과 임상 교육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향후 임상 제휴(Clinical Affiliation)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Día de los Muertos 조직위원회 의장이자, Alta Hospitals의 Director of Hospital Care Coordination인 실비아 카스토(Silvia Castro)와도 의미 있는 네트워킹을 진행하였다. 이는 지역 의료 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넘어, WMU 간호대학의 임상 실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교류 자리였다.

World Mission University는 이미 CCNE 인증을 받은 RN-BSN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ADN 프로그램은 2026년 8월 개설을 목표로 현재 California



행사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의 모습. ©학교 측 제공

Board of Registered Nursing(BRN)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WMU는 앞으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 인력 개발과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종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검색하세요!

진천국가대표선수촌교회, 성탄트리 점등 “선수촌에 성탄의 빛 전해”

순복음강남교회, 한국올림픽
선교회 등 80여 명 참여
점등식 및 감사예배 통해
위로와 격려, 희망 전해

대한민국 체육의 요람인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선수들과 체육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희망을 전하는 성탄트리 불이 환하게 켜졌다.

3일 저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 2층 진천국가대표선수촌교회에서 열린 성탄트리 점등식 및 감사예배에는 선수들과 체육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선수촌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한국올림픽선교회 이사장 및 총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대표회장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이하 이장균 목사)가 주최하고 순복음강남교회(이장균 담임목사), 국가대표기독신우회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순복음강남교회의 실업인선교회, 장로회, 교역자 및 성도 50여 명을 비롯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 체육교구, 대한민국 체육인기독신우회 소속 코치, 감독, 선수, 교수 및 국가대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성탄트리가 점등됐다. ©한국올림픽선교회

선수 등 총 80여 명이 선수촌을 성탄의 복음으로 밝히고자 하는 취지에 동참했다.

예배에 앞서 주요 인사들과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과의 만남에서는 선수촌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선수들의 평안과 발전, 섭김의 필요성 등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교회 황승택 담임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체육교



이날 예배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구 담임목사(이하 이장균 목사)의 사회로 순복음강남교회 찬양팀의 찬양, 권사일 장로의 대표기도 이후 한국올림픽선교회 대표회장 이장균 목사(순복음강남교회)가 구주가 나섰으나(눅 28: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주최 측은 국가대표 선수를 마치고 2년간 한국올림픽선교회 소속으로 현신한 김형현 권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권사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교회에서 전문성과 사랑으로 심리 상담 사역을 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영적 성장과 심리적 안정, 경기력 향상 등에 기여했다.

이장균 목사가 축복기도 및 축도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계를 위해 뜨거운 기도를 올리며 예배를 마쳤으며, 이후 야외에서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렸다. 트리는 무지개색 장식 조명으로 꾸며지고, 트리 중앙에는 내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는 ‘2026 밀라노올림픽 파이팅 밀라노에 태극기를!’라는 문구가 장식됐다.

한국올림픽선교회는 이날 “국가대표 선수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영적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을 전했다. 또 함께한 성도들은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스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지희 기자

‘기후위기 시대의 지구와 선교’ 출간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기후 대응 위한 실천적 길 제시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한국교회와 선교계도 더는 기후위기 문제를 단순한 사회 현안으로만 볼 수 없게 됐다. 전 세계 곳곳에서 흉수, 폭염, 한파, 가뭄이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은 환경 난민의 증가까지 현실화하면서 신앙과 선교의 방향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공동 기획한 책 ‘기후위기 시대의 지구와 선교(살림과다짐)’가 종이책과 전자책 형태로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2023년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과 KWMA가 공동 개최한 ‘선교지의 기후취약성 인식 설문조사와 포럼’의 결과물이다. 단순한 환경 보고서나 정책 문서가 아니라, 기후재난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생생한 증언과 창조세계를 돌보는 선교적 사명,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연대의 이야기를 담았다. 또 생태신학적 성찰, 환경 전문가들의 통찰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교회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다뤘다.

인류는 2019년 말부터 시작된 팬데믹을 통해 인간을 위한 자연 생태계의 혼란과 고통이 다시 어떤 영향으로 인간에게 되돌아오는지 경험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후위기 대응이 곧 인류 생존의 문제이며,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책임과도 연결된 고제임을 강조한다.

이번 발간은 기후위기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한국교회와 선교계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KWMA 강대홍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오늘의 선교는 단순한 복음 전파로 완결될 수 없으며,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종교적 선교로 나아가야 한다”며 “KWMA는 앞으로도 환경 전문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며,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기후위기에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이광섭 대표는 “이 책은 한국교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선교의 방향과 의미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 책을 통해 한국교회가 선교지의 기후 취약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온 청조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칼럼

일본교회의 현황과 교회 활성화를 위한 전략(下)

2. 대형 교회 중심에서, 많은 작은 교제 모임을 통한 교회 형성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선교 목표를 ‘하나의 큰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많은 작은 교제 모임들로 교회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많은 크리스천이 먼 곳에서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근처에 살고 있더라도, 집을 지울 때는 땅값이 저렴한 교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어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전도를 할 수 없게 되고, 자녀들도 교회에 다니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작은 교회를 새로 세워나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삶’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아 나아가

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한산아오자 대지진이라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고속도로가 무너지고 전철 선로가 끊어졌고, 도로가 통제되어 전철이나 자동차를 이용해 교회에 오던 사람들은 모두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년 후, 통행 제한이 해제되고 교회에 다시 온 사람들에게 “그동안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라고 물어보았더니, 많은 이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다시 교회당에 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양육하고 있었던 것은 주일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었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예배 당에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각자가 자신

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평신도를 중심으로 두 개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였고, 많은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3. 네트워크를 기능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기독교회의 네트워크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약 150개의 교단과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2016년에 고베에서 열린 제6회 일본전도 회의에서 프로그램 책임을 맡았고, 이어 2023년 기후현에서 열린 제7회 일본전도 회의에서는 실행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선교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교단과 교단 간, 그리고 많은 선교단체와의 구체적인 선교

협력입니다. 전도회의에는 160개 이상의 교단 및 선교단체가 모였습니다. 아동 선교, 청년 선교, 해외 선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선교 영역에서, 다음 전도회의 때까지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세우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본 국내에 있는 일본어 교회를 대상으로 해왔지만, 2023년 전도회에서는 ‘국외에 있는 일본어 교회와 국내에 있는 외국어 교회와의 협력을 다루고, 그들과의 공동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를 초월한 교회 형성 사역도 크게 진전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서 4장 16절의 말씀은 저에게 50대 이후의 삶의 주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



고다이라 마키오(오른쪽) 목사와 메구미 목사 부부

느니라(예배서 4:16)

이 말씀에는 다섯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각 지체가라는 표현처럼, 개인의 주체성이 있습니다. 각 교회와 각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히 여겨져야 합니다. 둘째,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표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셋째로, 그려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들을 잇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이 모여 있어도, 그것들을 연결하는 역할이 없다면 하

나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가까이, 저는 ‘연결고리’의 역할로서 교단과 교단, 원로 목회자와 젊은 목회자, 신학과 전통, 문화가 다른 사람들 간의 연결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 일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넷째, 몸이 자라며라는 표현처럼, 전체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일부 교회만 성장해서는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 즉 몸 전체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의 처음과 끝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과 교회 형성의 사역은, 그리스도에 의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일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본 교회와 협력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도 “연결고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고다이라 마키오(小平牧生) 목사(기독제단 니시노미야교회, 뉴커뮤니티 담임, 기독제단 총회장)



21번째의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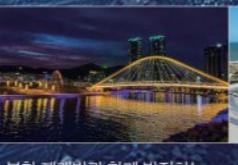
바다의 가능성을 우리 모두의 가치로 만들어온 부산항만공사 21년,
새로이 도약할 100년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세계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최첨단 스마트 항만 구축으로
원활·자동화 항만 실현



친환경·디지털 항만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북한 재개발과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로
부산항의 국제적 위상 확장

시작합니다

퓨리서치 종교지형 연구 “美 인구가 100명이면 기독교인은 62명”

미국을 100명이 사는 작은 마을로 축소해도 기독교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할까?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미국의 종교 지형을 새롭게 분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2023-2024년 진행된 대규모 ‘종교 지형 조사(Religious Landscape Study-RLS)’ 자료를 토대로 미국 사회의 신앙 분포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조사는 2023년 7월 17일부터 2024년 3월 4일까지 약 3만7천 명의 성인을 대상

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성인 인구 2억 6천2백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약 1억 6,200만 명, 무종교인은 약 7,600만 명에 달한다고, 이러한 방대한 숫자가 종교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만약 미국을 수억 명이 아닌

100명의 작은 마을로 상상한다면 어떤

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100명의 마을에서 기

독교인은 여전히 62명으로 다수를 차지

한다. 세부적으로는 복음주의 개신교 23

명, 가톨릭 19명, 주류(mainline) 개신교

11명, 역사적 흑인 개신교 전통 5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

도교회(몰몬교) 신자 2명, 여호와의 증인과 기타 소규모 종파 구성원 2명도 기독교 범주에 포함됐다.

반면 종교가 없다고 밝힌 무종교인은 29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웠다. 이들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혹은 특정 종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비기독교 신앙인은 총 7명으로, 유대교 2명, 이슬람 1명, 불교 1명, 힌두교 1명, 기타 소수 전통 2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구성에 나이를 적용하면 기독교의 ‘고령화’가 더욱 뚜렷해진다. 마을의 기독교인 가운데 50세 이상은 35명으로 절반

을 훨씬 넘었지만, 18~29세는 9명에 불과

했다. 반대로 무종교인의 경우 50세 미만이 20명으로, 젊은 세대에서 비종교적 경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기독교 여성 34명, 기독교 남성 28명으로 여성 비율이 다소 높았다. 무종교인의 경우 남성 15명, 여성 14명으로 거의 비슷했다.

인종 구성도 주목할 만하다. 마을 인구 종 배인 개신교인은 25명, 백인 무종교인은 19명으로 추정된다. 흑인 개신교인은 7명, 히스페닉 가톨릭 신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는 올해 2월 발표된 RLS의 이전 보고서와도 일치한다. 당시



©Unsplash/Timothy Eberly

보고서는 미국의 가장 젊은 연령층일수록 종교와 거리를 두는 경향이 뚜렷해 바 있다.

이미경 기자

10개월째 기소 여부 못 정한 영 경찰, 친생명 운동가 또 수사

영국의 친생명(Pro-life) 운동가 이사벨 본-스프루스(Isabel Vaughan-Spruce)가 ‘침묵 기도’ 혐의로 기소 여부가 10개월째 결정되지 않은 채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본-스프루스는 2022년 12월 버밍엄의 낙태 클리닉 보호구역(buffer zone)에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처음 체포됐다. 이듬해 2월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불과 몇 주 뒤 다시 한 차례 체포됐다.

6개월에 걸친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결국 모든 혐의가 철회됐다. 웨스트미들랜즈 경찰은 그녀에게 사과문과 함께 1만3,000파운드(약 2천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올해 3월, 본-스프루스는 또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다. 통상적으로 웨스트미들랜즈 경찰은 기소 여부를 2일 내 결정하지만, 이번 사건은 10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생각 때문에 잘못 체포됐다가 여러 차례 무죄가 입증됐음에도, 침묵 기도 때문에 반복적으로 조사와 고瑕辱을 받아왔다”며 “침묵 기도는 결코 범죄가 될 수 없으며, 누구나 사상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경우, 체벌은 과정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역 배경에는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이 판단을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스프루스를 지원하고 있는 ADF 인터내셔널의 법률 고문 제레마이어 이구누보레(Jeremiah Igunnubole)는 텔레그래프에 “당국은 과연 ‘침묵 기도’를 기소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며 “이처럼 장기 지역과 지속적인 법적 불확실성은 보호구역법 시행 시 이미 예상됐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본-스프루스를 겨냥한 법적 조치는 사상과 전통적 기독교 신념을 이유로 법적 제재나 심지어 구금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현

정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이사벨 본-스프루스 ©ADF International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 터키에서 교계 지도자들 기념 예배

초기 교회 역사에서 니케아로 불렸던 터키 이즈니크에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하는 에큐메니컬 예배가 열렸다.

이번 예배에는 교황 레오 14세, 세계교회협의회(WCC) 제리 필레이 총무,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등이 참석해 기독교 일치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전했다.

교황 레오 14세는 설교에서 “분열로 상

처 입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일치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한다”며 “여전히 남아 있는 분열의 스캔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레이 총무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의 ‘하나 됨의 기도’를 낭독했다.

예배 후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와 교황 레오 14세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은 1,700년 전 니케아 공의회의 유산에 감사하며,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계속됨을 확인했다.

선언문은 “이 중요한 기념일을 통해 일치를 향한 새로운 용기와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모든 민족의 평화에 근본적이고 생명력을 주는 기여가 될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현 국제 정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두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기독교 가정에 중요한 이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최근 미국 최대 복음주의 기독교 입양 기관인 라이프라인 아동복지 서비스의 대표인 허비 뉴웰의 칼럼을 게재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최근 미국 아동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탁가정에서 성인이 되는 청년들의 기회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산됐던 신앙인들은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용받지 못한다는 인식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독교계는 오랜 기간 자선봉사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해 왔다. 연구에 따르면 신앙을 가진 이들은 양육, 입양, 기부, 자원봉사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 여러 분야에서 신앙을 이유로 봉사 기회가 차단되는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주에서는 위탁가정을 운영하던 기독교인 부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배제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

가는 카르침을 지양하라는 압박을 받고, 상담

사들은 정부 규정 때문에 자신의 신앙적 관점을 원하는 내담자에게 조차 공유할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이 같은 압박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는 비판이 나온다. 목회자들은 특정 성경

가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의 차이가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배악관 신앙 관련 아동복지 논의에 세 차례 초대했고, 이번 임기에도 두 차례 참석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신앙 기반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 행정명령의 4항은 신앙 공동체와의 연방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를 ‘중대한 정책적 전환’이라 아동 복지 강화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환경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신앙인들이 위탁 보호입양과 정회복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넓어졌다. 더 많은 성도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설 때다. 이번 행정명령이 신자들에게 아동 복지 분야에서 봉사할 것을 촉구하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

이미경 기자



©pixabay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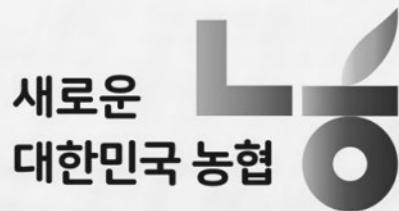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EWP 한국동서발전 | 주





사계절맛 제철기부

사시사철 365일 기부가 제철입니다

사시사철 늘 맛있는 우리쌀로
제철기부에 보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우리 제철 농축산물을 선택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지자체
그리고 농협이 함께 합니다

NH 농협

#쌀의 효능

쌀은 위의 기를 평하게 하고
근육을 기르며 속을 따뜻히 해
기운을 돋으며 번열을 제거한다.
또한 소화기능을 가진
허약체질의 환자에게
식이 요법의 훌륭한 약재이다.

- 동의보감 쌀의 효능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담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담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담례품 지급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 농축협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법인 불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과 회동에서 사법개혁 관련 “신중한 접근 필요” 강조

최근 열린 대통령실 주최 5부 요인 오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 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 개편은 광범위한 논의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를 둘러싼 우려와 걱정이 국민 사이에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여러 개편안이 국민의 권익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주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현행 3심제 구조가 헌법적 정당성과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사법부 구성원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사회적 이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3심제를

속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통해 이뤄

지는 만큼 정당성과 신뢰가 보장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가 기관들이 각자의 헌법적 책임을 다 하려 노력해 온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사법부 역시 계엄 직후 이를 반반법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관련 사건이 법원에서 계속 심리 중인 만큼 대법원장으로서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제를 보였다.

그는 개별 재판부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

오찬에 함께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한 침해를 받았던 상황에서 이를 지켜낸 국민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

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 중 시민의 용기 있는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를 요구 할 수 있었다는 대목이 널리 인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5부 요인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진행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고 말하자, 조 대법원장이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박용국 기자

미국,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로 조정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이행…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준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3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사전 공지 됐으며, 정식 게제는 4일 진행된다. 관세 인하는 1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체결된 ‘한

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율표(HTSUS) 개정 사항이며,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과 미 무역표부(USTR)가 공동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 동맹의 강력함과 지속성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10월 31일 국

빈 방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며 이번 조치를 ‘무역안보 프레임워크 협정’ 이행과 국가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조정의 핵심은 한국산 승용차·경트럭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을 15%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총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고, 1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2025년 11월 1일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 적용분부터 소급된다. 이 외에도 목재 및 관련 제품은 총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며, 민간 항공기 부품(무인기 제외)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추가 관세를 면제하고, 11월 14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기준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일본·유럽연합(EU)에

대한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동일하게 15%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너 미 상무장관은 1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확인했다. 그는 한국 국회의 ‘전략적 투자 법안’ 추진을 배경으로 들며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협정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한

국이 서명한 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APEC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내용을 합의했으며, 이후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한국산 관세 인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 등이 포함된 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홍은혜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 소비자 탈퇴 움직임… 소상공인은 대안 없어 버티는 상황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여파… 집단 소송 확산과 셀러 매출 감소 우려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을 주요 판매 플랫폼으로 활용해 온 소상공인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 매출 감소 속에서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 건으로, 온라인 커머스 업계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다.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비자 모임에서 불매 움직임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집단 소송 참여 인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준비 커뮤니티 가입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1일에는 이용자 1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쿠팡에 입장해 매출을 올려온 소상공인들은 이번 사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쿠팡 입장 2년 차인 강모(28)씨는 “사건 발표 이후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매출의 90%가 쿠팡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은 큰 부담”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강 씨는 “새벽배송과 로켓배송의 징검다可怕 때문에 쿠팡을 태했는데, 소비자가 빠져 나가면 살아남기 어렵다”며 “사태 이후 쿠팡으로부터 안내나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쿠팡에서 4년째 판매 중인 박모(49)씨도 유사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과거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 사의 표명

문진석 의원 인사 청탁 논란 이후 사직…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부터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사진)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남국 비서관이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같은 날 오후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

에게 같은 중앙대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이에 김 비서관이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답장을 보낸 사실까지 공개되며 논란은 확산됐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한다.

대통령실은 논란 발생 직후 공직 기강 차원에서 김 비서관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나래 기자

러시아 납치 우크라이나 아동 이송 의혹 제기

러시아군에 의해 납치된 우크라이나 아동이 북한 시설로 이송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지역 인권센터 소속 카테리나 라셰프스카 변호사는 3일(현지 시각) 미 상원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소 두 명의 아동이 러시아 점령지에서 강제 이동돼 북한 강원도 원산의 송도원 수용 시설에 보내졌다고 밝혔다.

그는 12세 미사와 16세 리자가 고향에 서 약 9,000km 떨어진 송도원 국제소년 단야영소로 이송됐으며, 이곳에서 반일-

반미 교육을 받고 푸에블로호 사건 관련 병사들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최소 1만 9,546명의 아동이 납치돼 러시아 또는 통제 지역으로 이동됐다. 일부는 강제 입양됐고, 나머지는 군사화재교육 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센터는 러시아 점령지, 러시아 본토, 벨라루스, 북한에 165개의 재교육 시설이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납치 인원이 2~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아 르보바벨로바 위원에게 아동 납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구한 아동은 1,859명에 불과하다.

유엔 총회는 3일 러시아가 이송한 아동 전원 송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강제 이송과 신분 변경, 입양 중단을 촉구하며 친성 91개국, 반대 12개국, 기권 57개국으로 통과됐다.

홍은혜 기자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 사용 7일 후,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사용기준] 2023.01.25~2023.03.10 [사용내용] 성인 여성 30명 [사용기준] [주]글로벌의학연구센터

제10회 디셈버퍼스트, 하노이에서 국제 행사 개최

2025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청소년을 중독과 HIV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메시지 확산

2025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제10회 '디셈버퍼스트(December First)' 국제 행사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하노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하노이 한인교회와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 에이랩아카데미선교회(에이랩), 베트남다음세대자기기연합이 협력해 준비했다. 2016년 시작된 디셈버퍼스트는 매년 세계 에이즈의 날에 맞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국제 행사를 이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지역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중독과 조기 성경험, HIV 감염 위험이 동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청소년의 성 보건과 중독 예방을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하노이 한인교회는 태원수 목사가 이끄는 대표 한인 복음 공동체로, 말씀 중심의 예배와 돌봄 사역을 통해 지역 교민사회를 섬기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도 현지 참가자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했다.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은 '청소년 HIV 예방 및 바른 성가치관 세미나'로 구성됐다. 한가협과 에이랩의 김지연 대표는 초

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성도를 대상으로 총 네 차례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청소년들의 실제 필요를 반영해 구성됐으며, 하노이 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또한 베트남 현지 목회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중독포럼도 마련돼 약 4 시간 진행됐으며, 강의 후 40여 분간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베트남 내 청소년 보건 문제는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음란물과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10~20대의 정신 건강 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HIV 신규 감염 위험이 확대되면서, 청소년 보호와 건강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관계자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곧 국가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하노이에서 진행된 디셈버퍼스트는 한국과 베트남이 협력한 의미 있는 국제 연대의 장"이라고 평가했다.

태원수 목사는 "내년에 인도차이나반도 5개국 디아스포라 선교사 모임에서도 이 주제가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다음세대자기기연합 김영신 대표는 "한국에서 배운 에이랩 성가치관 교육을 하노이에서 HIV 예방 교육과 함께 진행하니 교육 효과가 커다"며 "내년에는 호치민에서도 행사를 열고 싶다는 요청이 있다. 대한민국이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의 등불로 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2025년 어린이 생명존중·나눔 교육 성료

서울 43개 초등학교 8,680명 참여… 장기기증의 가치 전달하며 교육 마무리

2025년 서울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 프로그램이 12월 1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유재수, 이하 본부)는 서울특별시의 지원 아래 운영된 「모든 생명은 소중해」 교육을 통해 43개 초등학교 8,680명의 어린이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장기기증의 의미를 전달했다. 올해 마지막 수업은 신림초등학교와 을지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본부는 2019년 국내 최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나눔 교육을 시작한 이후 6년간 618개 학교, 약 5만 명의 학생을 만났다. 2025년 교육에서는 교재가 새롭게 개편돼, 어린이 눈높이에 맞

춘 장기기증 이야기가 추가됐으며 흥미盎味로 진행된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 프로그램이 12월 1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동화 <붉은 돌고래>는 장기이식 과정을 어린 시각에서 서정적으로 표현했다.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 영웅이의 가슴에 살던 붉은 돌고래(심장)가 거센 폭풍우를

그림책 영상 제작에는 한국영상대학교 미디어보이스학과 학생들이 목소리 재능 기부로 참여했다. 또 다른 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푸른 별>은 낮은 학년을 위해 자신의 별 조각을 나누며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를 담아 나눔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했다.

교재 활동도 더욱 풍성해졌다. 학생들은 장기의 위치와 기능을 직접 배우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약속했고, '마음 처방전'을 작성하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활동을 경험했다. 또한 또래 장기기증인과 장기이식인의 실제 사례를 읽으며 공감 능력을 기르고, 가족과 친구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을 수료한 영훈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들. ©주최 측 제공

부터 생명나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미래 세대가 자연스럽게 생명나눔 문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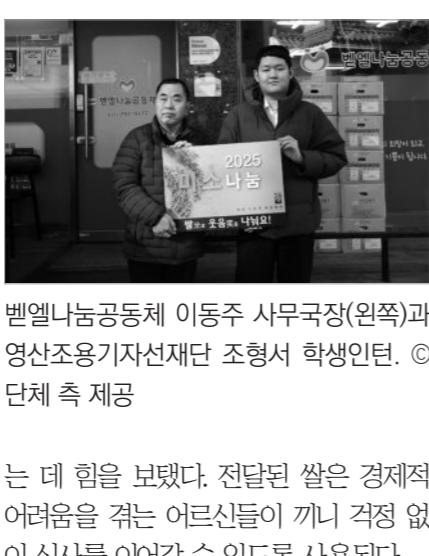
최승연 기자

영산조용기자선재단, 하남시 취약계층에 미소나눔 쌀 2톤 전달

벤엘나눔공동체와 협력해 노인 무료급식 지원 확대

(재)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사장 윤홍열김기돈)은 최근 하남시에 위치한 벤엘나눔공동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미소나눔 쌀 전달식'을 거울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식생활 안정을 돋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재단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는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조형서 학생인턴과 벤엘나눔공동체 이동주 사무국장(원쪽)과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조형서 학생인턴. © 단체 측 제공



는 데 힘을 보탰다. 전달된 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끼니 걱정 없이 식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용된다.

벤엘나눔공동체는 하남시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과 식생활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기관으로, 그동안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해왔다. 이번 지원을 통해 고령층과 저소득 가구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 복지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무료급식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 확보"라고 설명하며,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식사 지원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단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번 미소나눔 쌀 전달은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 꾸준히 이어온 복지 지원 활동의 연장선으로, 지역사회와 돌봄 체계 강화와 식생활 안전망 확보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연 기자

한국해비타트, 최시원과 함께 은퇴 선교사 주거 지원 캠페인 본격화

한국해비타트가 해외 사역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뚜렷한 주거 대책 없이 지내는 은퇴 선교사들을 돋기 위해 새로운 지원 캠페인 '돌아온 선교사의 피난처'를 출범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랜 기간 복음 전파에 헌신한 선교사들이 노후에 최소한의 주거 안정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과 동서선교 연구개발원 한국본부가 전 세계 54개국 선교사 3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5%가 은퇴 후 머물 집이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 37.5%는 보험연금에 기인하지 않았으며, 18.5%는 국민건강보험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 선교사들의 삶이 제도적 보호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9월 17일 가수 겸 배우 최시원 씨를 흥보대사로 위촉하며 본격적인 대중 참여 모금운동에 나섰다. 최 흥보대사는 "은퇴 선교사들의 주거 문제는 누군가는 반드시 앞장 서야 하는 사안"이라며, "작은 도움이라도 보탤 수 있어 영광"이라고 전했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교회와 시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운동"이라며 "헌신적으로 사역해 온 선교사들이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없다'는 절망 속에 머물지 않도록 전국적인 나눔 참여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비타트는 캠페인 첫 단계로 경기도 양평과 제주 지역에 18명 규모의 목조 단독주택을 마련해 무상대차 방식으로 제

공할 계획이다. 이후 참여 단체와 후원 규모에 따라 지원 자격과 대상자를 점차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1994년 설립된 한국해비타트는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해 왔다. 건축 봉사자, 기업, 교회, 각종 단체의 후원과 참여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집짓기와 마을 재건에 힘써왔다.

노형구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내 의에서 넘어지고 말씀 순종으로 넘어서다”

배안호 선교사
영국 선교사



◆들어가는 말(서론):
“행동하는 제자인가?”
VS “공부하는 팬인가?”

“내 의에서 넘어지고
말씀 순종으로 넘어서
다” - 본서의 부제(副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제자훈련 실전 전략” - “넘어짐을 성장의 기회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제자훈련 이야기”

목회와 선교의 본질중의 본질은 제자 훈련이다. 제자훈련 깃발을 들기만 하면 승승장구 성공적인 목회와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1980, 1990년대 한국 교회는 KTX 고속전철 속도로 급성장 하던 시기에 설립된 사랑의 교회(옥한흠 목사)는 제자훈련으로 건강한 교회의 표상이 되었다.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은 지난 20~30년간 보편화 되었다.

〈제자훈련 실패는 없다〉(배장돈, 디모데, 2015) 이 책 제목대로 정말 제자훈련에 실패는 없을까? 제자훈련 과정에서 빼 아픈 실수실패가 있지만 마침내 성공하게 된다는 뜻이다. 제자훈련에서 진정한 실패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평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제자훈련 중도 넘어진 교회와 선교지를 목격하였다. 그렇다면 제자훈련 과정에서 “넘어짐을 성장의 기회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제자훈련 이야기”가 있을까?

〈넘어진 제자훈련 넘어서서다〉(국제제자 훈련원, 2024) 김대조 목사는 “이 책은 제자훈련을 통한 변화된 삶의 성공적인 사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이 책에서 ‘제자훈련에 실패한 이야기’, 제자 훈련에서 내가 풀지 못한 문제들, 깊은 고민과 아픈 실패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누려고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침된 제자훈련과 목회,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한다”(p. 21, 프롤로그, 제자훈련에 실패했던 저자의 진솔한 고백)

김대조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 Div), 영국 애버딘대학교 신학석사(Th.M), 런던신학대학에서 박사(Ph.D), 런던행복한교회 개척담임, 서울 사랑의 교회(옥한흠 목사)를 거쳐 주님기쁨의 교회(서울 잠실)에서 종교학교로 성장하였다. 현재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강의 CALNET 서울대표와 서울중앙지검/고검 지도목사로 섭기고 있다.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인생, 너) 〈존 스토퍼와 옥한흠에게 간단히〉 서평할 것이다.

2부, 5개장 목차: 제1부 제자훈련이 빠지기 쉬운 함정: 1장 제자훈련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2장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2부 실패를 넘어서는 제자훈련 법칙: 3장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4장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서야 합니다. 5장 우리는 회복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서평자는 본서의 핵심내용을 훑어보며 ‘간단히’ 서평 할 것이다.

1. 제자훈련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담합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2, 13)

1.1. 김대조 목사는 누구인가? 저자를 알게 되면, 이 책의 핵심가치를 알게 된다.

김대조 목사는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최고의 대가’(옥한흠)로부터 기본기를 5년간 가장 확실하게 배웠다. 저자는 London Bible College(런던신학대학)에서

동서양의 강해 설교를 비교하는 설교학 논문으로 ‘박사(Ph.D) 취득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 옥한흠(王漢欽, 1938-2010) 목사와 존 스토퍼(John R. W. Stott, 1921-2011) 목사의 강해설교를 비교연구하였다. 논문이 통과되었을 때, 옥 목사님은 “한국에 와서 나를 도와 제자 훈련 사역을 하면 어떻겠나?”고 제안하여 성결교회 목사가 장로교회인 사랑의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김 목사는 체계적으로 목회훈련을 배운 적이 없었다. 유년주일학교 교육전도사와 영국 런던에 유학 가서 개척교회를 한 것이 전부였다. 평소에 배우기를 즐겨 하는 김대조 목사는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제자훈련목회 노하우를 옥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메모하여 책으로 출판하였다.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두란노, 2012)

김대조 목사의 진술한 ‘고해성사(告解聖事)’ 고백들:

“제가 아래 빼도 비싼 강사입니다. 학생들은 수업료를 많이 내고 강의를 들어요”(훈련에 대한 자부심과 나의 의가 썩은 친밀감이 생겨서 자칫 서로에게 열광하고 언제든지 인간적인 분위기에서 힘싸일 수 있는 위험도 간과했다”(p. 34) “나는 옥한흠 목사님이 제자훈련생들에게 훈련 기간 동안 왜 봉사를 의무로 하도록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했다”(p. 36)

“목사님은 설교와 심방만 하세요. 인사 행정재정은 내려 놓으세요.” 담임목사도 모르는 안수집사회를 조직. 15-16명이 서명, 부목사 중심 모임. 운영위와 안수집사들이 소문을 만들며, 심지어 주일에 전단지까지 만들어 교회를 훈련판... 인생에서 처음으로 처절한 아픔. 날마다 강단에서 꺼져 웃었다.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자. 모든 책임과 죄는 나에게 있다. 성도들에게 배기 를 들고 투항했다. 저자의 제자훈련 고백 끝이다.

1.2. 고속성장의 후유증 교회 분열, 바닥을 치다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성가대를 없애는 목회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 제자훈련의 목적대로 훈련 중에

지속적으로 영혼구원을 강조하고 교회의 모든 우선 순위와 관심을 영혼구원에 맞춰야 했음을, 말씀을 지속적으로 삶과 연

결시켜 적용해야 했음을 알게 됐다. 영혼 구원이라는 닻을 올리고 가려던 배가 성가대의 자리매김이라는 큰 파도에 훌린 아픈 경험이 되었다”(p. 58, 목회위기는 성급하게 성가대를 없앤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

“나의 잘못된 제자훈련의 대가는 아픈 눈물이었다. 임직식 이후 교회가 훈련리자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졌고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 하며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됐다. 그때 나는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라는 책을 쓴 자자로서 이제는 스스로에게 책의 제목을 적용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 어떤 말과 설득으로도 되지 않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 수 있음을 직감했다. 옥한흠 목사님이 보여주신 ‘제자도’였다.”(p. 74)

“제자훈련은 교회 조직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목회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분명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경계했음에도 어느새 제자훈련이 사람 중심의 목회와 훈련,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나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진리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제자도’를 제대로 짚어 주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과 욕심이 제자훈련이라는 배에 구멍을 냈다”(pp. 65-66)

“관계를 통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제자 훈련의 길이었다”

“내가 예수님을 보여줘 했는데 목사를 보게 한 것이다. 또한 나 역시 완벽한 목사가 아닌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미성숙한 사람임을 알려주지 못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의 훈련은 인간중심적인 경향이 있었다. 나는 사람을 너무 좋아 했기에 모든 사람을 좋게만 생각하고 방심했다. 나 자신을 포함한 사람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나의 의와 교만과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욕심으로 가득찬 존재라는 것을 뱜처럼

없어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할 수 있다. 더 구나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팬’이 된다. 2-3년 더 훈련을 받으면 거의 목사급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간증도 한다.

김대조 목사는 진솔하게 고백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손해를 보았는가? 나 자신도 평신도들과 다르지 않았다” 진솔하게 고백한다. (p. 33)

“예수님과 관계 맺기로 시작했지만 훈련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맺기가 되고, 주님과의 친밀감 보다 훈련생들 사이의 깊은 친밀감이 생겨서 자칫 서로에게 열광하고 언제든지 인간적인 분위기에서 힘싸일 수 있는 위험도 간과했다”(p. 34) “나는 옥한흠 목사님이 제자훈련생들에게 훈련 기간 동안 왜 봉사를 의무로 하도록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했다”(p. 36)

4. 실패를 넘어서는 제자훈련 법칙: → 실

패 후, ‘또 다른 7년 제자훈련’ 이야기

2부의 개척 후 7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며 실패의 눈물을 흘린 이후의 이야기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제자훈련 현장에서 실패들을 보완하며 보낸 또 다른 7년의 제자훈련 이야기이다.

4.1.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지식에서 삶의 변화로/의인에서 죄인됨의 초점으로/십자가의 막연함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제자훈련은 단지 학문적인 배움이 아니라, 인격적 변화요 단순히 자기 절제 면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켜 순종으로 내보내는 ‘조련사’가 되어 있었다. 나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훈련자였다. 결석 10만원, 1초만 늦어도 지각은 2마원을 내야 했다. 강한 훈련도 어느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강한 사람을 만드는 목적의 훈련이 아닌 영혼구원의 목적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하는 훈련이어야 했다/성가대가 없으면 성가대원들이 영혼 구원을 생각하며 교회의 다른 선집과 봉사의 자리를 찾아 헌신할 줄 알았다/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2년 간의 무보수 사역은 내 당당함 이었고 ‘훈장’이 되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여 바리새인의 ‘의’가 되게 할 줄은 몰랐다/제자훈련 이상론은 나와 교회의 독이 되었다.

4.2.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서야 합니다'

말씀묵상은 기초 체력이다/말씀으로

기도하기 영적인 기초체력! 내 안에 말씀이 고여 있어야 가능하다/말씀을 기억하

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말씀으로 기도하

면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

다/제자훈련은 제생산입니다. 재생산 없

는 제자훈련은 실패한 것입니다/”여러분

큐티의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김양재)/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제자훈련의 방향제시)/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기도 모르게 의인이 된다. 특히 목사가 항상 ‘의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되고 옳은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이 정도 교회사이즈가 되면 그 정도 배려는 받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했던 것도 사실/40일 특별새벽기도회 36일째 새벽 “내가 너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불들어라. 그것이 너를 자kir이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함으로 그것을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자신을 보는 훈련/“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알렉산더 매클란)/훌륭한 설교의 비결은 설교자의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끌어내는데 있다고 믿는다

내게는 사람보다 사역이 먼저 보였다. 이것이 나의 제자훈련에서 큰 약점이었다/나는 어쩌다가 성취중심의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좋은 성품의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웬지 무능해 보이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이 힘들었다/그런데 돌아보면 난 말씀중심이기 보다 목적지향적이고 사역중심이었다/”목회는 관계예술이다. 살아 있는 관계 맺음이 목회다”(최상태 목사)/말씀중심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 이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i+ 1억 dream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

(2024년 1월 ~ 9월 누계)

고마워요 인천!!

인천평역시

i+ 집 dream 천원주택



시리즈
신청하기

‘필사적’(必死的)으로 ‘필사’(筆寫)하라

신성욱 교수
아신대 설교학



요즘 사람들의 하루는 빠르게 흘러간다.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 화면이 먼저 말을 걸고, 길을 걸으며 이어폰 속 영상이 시간을 채우며, 저녁이 되면 게임과 TV가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손끝 하나로 무한의 세상이 펼쳐지는 시대에 우리는 편리함을 얻었지만 동시에 사유의 깊이를 잊어가고 있다.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 게임의 즉각적인 자극, TV의 빠른 전환은 우리의 눈은 열게 했지만, 마음의 문은 닫게 했다.

정보는 넘치지만 지혜는 줄어들고, 말은 많지만 생각은 알아졌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선현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 생각해 보라. 그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책을 읽었고, 지혜를 얻기 위해 문장을 곱씹었고, 생각을 깊게 하기 위해 보배로운 글들을 베껴썼다.

그들에게 독서는 지식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필사’(筆寫)는 단순한 베끼기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정제하는 의식이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선현들의 사유를 빌려 현재를 이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필사란 그 사유를 손끝에 새기고 자기 마음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다.

요즘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시간이 있는 것 이 아니라, 시간을 깊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화면 속 자극은 빨리 지나가지만, 한 권의 고전과 한 줄의 필사는 우리의 뿌리를 깊게 만든다. 스마트폰은 하루를 채우지만, 고전은 삶을 채운다. 게임은 순간을 남기고, 필사는 생각을 남긴다. TV는 소리를 퍼뜨리지만, 독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깨운다.

젊은이들의 시대는 너무 빨라서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 멈춤이 바로 독서이고, 그 멈倨이 바로 필사이다. 지금 손에 훈 화면을 잡지 내려놓고 대신 한 권의 고전을 들어보라. 선현들은 우리보다 먼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말을 건다. 그리고 그들의 문장을 따라 써 보라. 한 줄을 쓰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타인의 자혜가 우리의 사유가 되는 순간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불들어야 할 것은 빨리 사리지 는 빛이 아니라, 마음을 밝혀 주는 깊은 빛이다. 그 빛은 내 손 안의 화면이 아니라, 내 손과 눈과 마음을 통해 천천히 들어오는 책 속에 있다.

고전을 가까이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필사다. 필사란 ‘문장을 읽고 손으로 베껴 쓰는 것이다. 우리가 필사해야 할 보배롭게 빛이 나는 위대한 작품들이 즐비하다. 날마다 우리가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TV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논어』, 『도덕경』, 『목민심서』 같은 동양 고전에서부터 『데미안』, 『레 미제라ブル』, 『아린 왕자』, 『침묵의 봄』 등 서양의 인문 및 문학 고전까지 우리 마음과 영혼을 영롱한 디아몬드처럼 빛내줄 보고들이 넘쳐난다.

이런 고전 속 명문장을 읽고 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문장 속에서 자기 문제를 비춰 보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한 문장을 곱씹으며 쓰는 동안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고, 고전의 생각을 오늘의 삶과 연결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고력과 문해력이 자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한층 깊어지게 됨을 경험할 것이다.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쓰면서 생각하라. 선현들의 보배로운 문장을 한 쪽씩 읽고 쓰다 보면 문장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언어로, 언어가 태도로 이어진다.

작품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고, 오늘의 삶에 자혜와 통찰을 건네는 명문장을 책 속에서 골라라. 삶의 태도를 바꿔줄 한 문장, 고민을 풀어줄 실마리가 될 단서

같은 한마디를 찾아서 읽고 써서 마음에 새겨두라. 하루하루 쓰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고전의 지혜가 나만의 언어로 바뀌어 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읽고 쓰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문해력과 표현력이 배양됨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한 문장이 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한 번 존재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 다.”

이 문장은 인간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일깨워 준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나’와 똑같은 존재는 없다는 뜻이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생각, 경험, 성품,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독특한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남과 비교해서 우울증이나 절망에 빠져서 생을 포기하거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소중한 시간을 소모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위의 문장은 새로운 도전과 소망과 용기의 말이 될 것이다. 위 문장이 주는 교훈은 비교와 모방에 빠지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라는 것이다. 남처럼 되려 애쓰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개성을 빛내는 것이 진정한 성장과 행복의 길임을 일깨워 준다.

다니면 만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주님 뜻에 맞출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유연한 마음이어야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새 부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당시의 기독권자들은 자기들끼리 엘리트 집단이 되어 성전의 담을 높여 이방인과 구별하고,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사교클럽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간디가 영국 유학생들 중 교회를 나갔지만 기존 크리스천들이 만들어놓은 높은 담에 막혀, “Jesus Yes, Church No!”라는 결론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려면 기꺼이 불편해지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나 선교의 1차적 불편함을 이기면 2차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이, 새 부대가 되어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설교는 위로를 넘어 성품의 변화를 촉구해야

김병구 장로
비른구원관 선교회

리: 성품의 변화 없는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다.

진정한 치유는 감정이 진정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분노가 절제로, 교만이 겸손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증명된다. 이전과 같은 말, 같은 선택, 같은 가치관을 유지한 채 “위로만 받은 신앙”은 결국 열매 없는 신앙으로 남게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물의 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이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 상처 입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친한 영혼을 어루만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위로는 복음의 중요한 기능이다. 예수님께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그러나 설교가 위로에만 머물고, 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교회는 점점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성도는 위로받는 존재로는 머물 수 있으나, 거룩하게 변화되는 제자로는 자라지 못하게 된다.

오늘날 위로 위주의 설교가 반복되면 서 성도들 안에는 ‘위로받는 신앙’은 강해졌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은 약해졌다. 십자가 없는 위로, 회개 없는 은혜, 순종 없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

2025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묵상할 성경구절 10가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롯한 대부분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질이 많아 물이 탁하며 맑았었고 또 우리가 짚고 건기가 길어 물을 저장해야 했기에 불순물과 세균이 늘어나 살균 효과가 있는 포도주를 물보다 안전한 음료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마9:17)는 가르침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생명의 예수님이고 부대는 예수님이 영접하는 우리들입니다. 발효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 새 포도주까지 잃게 되는 것처럼 새 생명의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부대인 내가 새 마음, 새 성품으

로 변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를 확실히 정리할 수 있어야 새 부대가 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건짐을 받았지만 과거의 미련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특수작전 사령부 맥 레이븐 제독의 2014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출입식 축사 연설, “만약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 정리부터 하십시오.”는 큰 반향을 일으켜 ‘Make Your Bed (침대 정리부터 하라)’라는 책으로 출간 되기도 했습니다.

또 새 부대는 신축성 있는 유연한 마음입니다. 두 사람이 춤을 출 때는 못 추는 사람이 잘 추는 사람을 따라하는 유연함이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출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주님 뜻에 맞출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유연한 마음이어야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새 부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당시의 기독권자들은 자기들끼리 엘리트 집단이 되어 성전의 담을 높여 이방인과 구별하고,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사교클럽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간디가 영국 유학생들 중 교회를 나갔지만 기존 크리스천들이 만들어놓은 높은 담에 막혀, “Jesus Yes, Church No!”라는 결론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려면 기꺼이 불편해지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나 선교의 1차적 불편함을 이기면 2차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이, 새 부대가 되어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1. 이사야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

2. 갈라디아서 4:4-5=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으나라.”

7. 이사야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8. 누가복음 2:14= “지극히 높은 곳에 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9. 마태복음 2:10-11= “그들이 별을 보고 심히 기뻐하여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를 뵙며 경례하고...”

10. 로마서 15:13=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탄생일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신학적 의미

여인갑 장로
시스코프 대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매년 12월이 되면 세상은 성탄의 불빛으로 물든다. 그러나 신앙인들조차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단순한 연대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신앙의 본질과 성육신의 의미를 가늠하게 한다.

◆성경이 전하는 단서: 예수의 실제 탄생 시기
성경은 예수님이 정확한 출생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몇 가지 단서가 있다.

누가복음 2장 8절은 “복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켰다”고 말한다.

이 구절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팔레스타인의 12월은 매우 춥고 양들은 보통 우리 안에 가둔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겨울이 아니라 봄이나 가을일 가능성이 크다. 일부 학자들은 유월절 전후(3~4월), 혹은 초막절(9~10월) 무렵으로 본다.

또한 누가복음 1장의 사가랴 기록은 다른 추정 근거를 준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제8반열)에 속했는데, 이는 역대상 24장에 따르면 6월경 성전에서 봉사하던 순간이다. 그가 봉사를 마친 뒤 엘리사벳이 임태하고, 6개월 뒤 마리아가 임태했다면, 예수의 탄생은 그로부터 약 9개월 후, 다음 해 9월경 즉 초막절 시기로 계산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매”(요 1:14)라는 구절은 ‘장막을 치다’(스케노 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예수의 탄생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건’, 즉 초막절의 완성으로 보는 해석은 신학적으로도 아름답다.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이유

그렇다면 왜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정했을까? 이는 역사적, 상징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첫째, 로마 제국에는 ‘솔 인빅투스(Sol Invictus, 무적의 태양)’ 축제가 있었다. 12월 25일은 동지(冬至) 직후로,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로마인들은 이 날을 ‘빛이 어둠을 이기는 날’로 기념했다. 4세기경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이 날을 ‘참된 빛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바꾸어 기념했다. 이교 축제를 대체하여 복음적 의미를 새긴 것이다.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태양의 탄생을 버리고,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라.”

둘째, 초기 교회는 ‘수태일(Annunciation)’과 ‘부활절(Easter)’의 계산법을 연결했다. 예수의 수태일은 3월 25일(춘분점 이후)로 계산하고, 그로부터 정확히 9개월 후인 12월 25일을 탄생일로 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신학적 상징이었다. 봄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고, 가장 어두운 겨울에 ‘구원의 빛’이 태어났다는 교리적 선언이었다.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견해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신학자들이 이 날짜에 의미를 부여했다. 히폴리토스(3세기 초)는

『다니엘서 주석』에서 이미 “그리스도는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고 기록했다. 이는 3세기 초

로마 교회에서 이미 성탄일 전통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요한 크리소스토(4세기)은 “12월 25일은 로마 교회로부터 전해진 전통”이라며, 단순히 태양신 축제의 대체가 아닌 교회의 오래된 신앙적 유산임을 강조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날짜를 천문학적으로 상징화하며 말했다. “그리스도는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에 태어나셨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커지는 것을 상징한다.’ 즉, 자연의 리듬을 복음의 상징으로 전환한 것이다. 겨울의 한복판, 세상은 어둡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시작된다는 고백이다.

근대 이후 학자들은 천문학적 근거를 통해 예수의 출생 연대를 추정하려 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별’ 현상을 근거로, 기원전 7년경 목성과 토성의 삼중합(planetary conjunction)을 언급한다. 이 현상은 고대 천문학자들에게 ‘왕의 별’로 여겨졌으며, 예수의 탄생을 암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헤롯 대왕의 사망이 기원전 4년이므로, 예수의 실제 출생 시기는 기원전 6~4년 사이로 보는 것에 일관적이다.

12월 25일은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빛과 어둠의 전환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한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주적 차원의 반전이다. 죄와 절망, 죽음의 긴 겨울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사건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는 빛이 되시기 위해 어둠의 계절에 오셨다”고 설교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탄은 단지 예수의 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날’이다. 이날, 하늘과 땅이 만났고, 시간과 영원이 포옹했다. 인간의 절망 한가운데서 구원이 시작된 날, 그것이 바로 성탄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에 침투하신 ‘구속의 침입’이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언제로 보든, 중요한 것은 그분의 탄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결손의 상징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열린 구원의 문이다. 그분은 권력의 중심이 아닌,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셨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성탄은 하나님 이 인간의 집에 들어오신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이 그분의 거처가 되어야 한다.” 성탄은 과거의 축제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하는 결단의 날이다. 12월 25일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이 ‘그리스도의 다시 태어남’이 되어야 한다. 어둠의 한 가운데서 빛이 태어났다. 그래서 성탄은 희망의 시작이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그날이 바로 진정한 성탄절이다.

社說

자선냄비,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기를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국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서울은 지난 달 28일 광화문광장에서, 부산 등 각 도시는 이달 1일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과 불우이웃을 돋기 위한 자선 모금 활동을 개시했다.

올해로 97주년을 맞은 구세군 자선냄비의 올해 캠페인 주제는 ‘Light of Hope- 희망의 빛’이다. 사회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100년 가까이 거리에서 희망의 불빛을 밝혀온 자선냄비의 정신을 담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의 메신저’로 참여해 우리 사회의 어두움을 함께 밝히자는 의미다.

구세군 자선냄비 곁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9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부 방식이 확 달라졌다. 종래의 현금 기부와 함께 새롭게 NFC 기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스마트폰을 모금 판에 한 번 태그하는 스마트 기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기부 방식의 간편화는 직접 현금을 내던 기존의 현금 기부 방식에서 변화를 꾀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부는 하고 싶은데 수중에 현금이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현금이 있든 없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여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요즘 지갑이나 주머니에 현금을 넣어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현금 소지가 거추장스러워졌다. 이런 현실에서 현금 기부만 고집할 경우 시민 참여도는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선냄비 기부에 스마트 태그방식을 도입한 건 이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결제 습관에 적안한 만큼 기부 참여 장벽을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세군 측도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한 NFC 기부 가 연령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선냄비 기부 참여율이 높아질 걸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사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부 방식의 변화가 국민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도심에서 지나던 시민들이 구세군 종소리에 이끌려 자선냄비가 설치된 곳에 와서 사관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스마트폰을 자선냄비 옆 카드리더기에 가까이 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낯설어하는 이들도 있으나 NFC 기부를 경험한 시민들은 “기부가 훨씬 쉬워졌다”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스마트 기부제가 도입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아무래도 기부 문화의 확장성과 접근성일 것이다.

기부 캠페인을 통한 시민 참여가 이전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될 수 있고, 직장인, 학생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현금 없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확연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비교적 부담 없이 소액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거리에서 시민이 직접 자선냄비에 기부금을 넣는 방식이 점차 사라지는 건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자선냄비에 동전이나 지폐를 넣는 모습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기부 문화가 달라져도 소중히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풍경이다.

결제 방식의 다양화는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선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 모두의 참여를 이끄는 방향성에 의미를 둬야지 편의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기부가 아닌 세금 징수로 비칠 수 있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자선냄비는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구세군 사관 조지프 맥피가 도시 빈민과 재난 피해자를 돋기 위해 처음 시작한 연말 모금 운동이다. 성탄절 직전, 샌프란시스코 부두에 큰 솔을 내걸고 “이 국술을 펼칠 끓게 합시다”라는 문구로 모금을 시작한 것이 자선냄비의 시작이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서 김병윤 사령관은 “지난 97년 동안 어려운 이웃의 곁을 지켜온 구세군은 올해도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역할을 이어가겠다”며 “시민들의 따뜻한 참여가 모일 때, 이웃의 삶에 희망이 더해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선냄비 모금은 서울 명동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전국 300여 곳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구세군 측은 올해 자선냄비 모금액을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여성다문화, 긴급구호위기기정, 소외 및 불평등 완화, 지역사회기후변화, 글로벌 파트너십 등 7개 영역에서 기초생계, 역량 강화, 환경 개선, 건강증진, 사회안전 등 5대 원칙에 따라 차년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가왔을 때 부터 느끼게 하는 일종의 시그널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부 온도계는 차갑게 식어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대에 맞게 기부 방식도 새롭게 바꿨을 것이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자선냄비를 펼칠 끓게 해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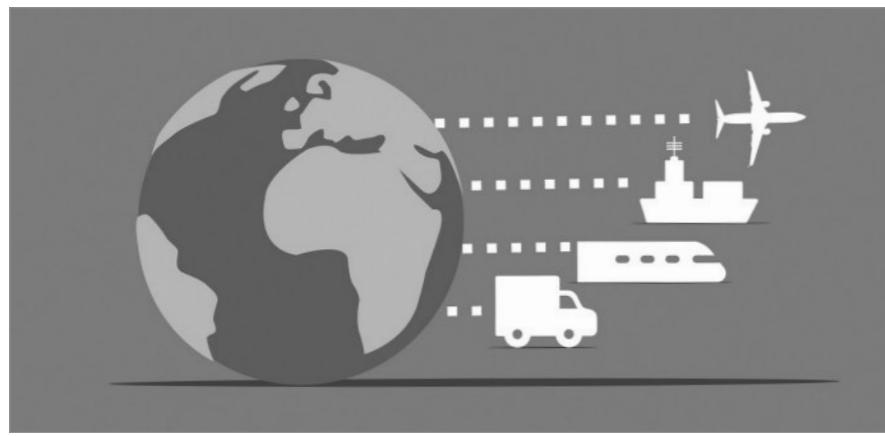
듣는 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듣는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전기방석 확인하고 구매하세요”…해외직구 36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402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02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3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402개 제품에 대해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

이 9%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15개 제품 중 전기방석(5개), 전지(2개), 전기요(1개), 전기스토브(1개) 등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160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7개), 학용품(6개), 완구(4개), 유아용 섬유제품(3개) 등 20개 제

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생활용품은 조사대상 127개 제품 중 온열팩(2개), 스키용 안전모(1개), 전동킥보드(1개) 등 5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

특히 전기방석,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45%, 35%, 27%로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3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 및

소비자24에 게재했고 소비자 구매 방지를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하여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직구는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안전성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다은 기자

아침 안 먹는 청소년 43.6% ‘최대’ 정상체중 여학생 10명 중 3명 “살쪘다”

질병청 ‘2025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은 아침을 안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 사이에 ‘뼈 말라’(극단적인 마른 체형) 다이어트가 유행인 가운데, 여학생 30% 가까이는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살이 쪘다고 느꼈다.

질병관리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5년부터 전국 800개 표본 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는 청소년 건강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주 5일 이상 아침을 거르는 청소년은 43.6%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05년 통계 작성 아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남학생 41.9%, 여학생 45.3%로 각각 1.7%p, 0.6%p 올랐다. 하루 1회 이상 과일을 섭취하는 청소년은 17.8%로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남학생은 17.9%, 여학생 17.8%였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청소년은 27.0%였다. 단맛 음료 섭취율은 남학생 62.8%, 여학생 53.5%로 지난해보다 각각 6.0%p, 6.2%p 급감했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한 주 3회 이상 제로 음료 섭취율은 남학생 20.1%, 여학생 12.7%로 집계됐다.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12.6%)은 비만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16.6%)이 여학생(8.4%)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청소년 23.1%는 정상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형이 살이 찐

편이라고 인지했다. 특히 여학생의 비중은 28.2%로 남학생(17.6%)보다 월등히 높았다.

중고생의 일반 담배 현재 흡연율은 3.3%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다. 남학생(4.4%)과 여학생(2.1%)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은 남학생 5.4%, 여학생 2.8%로 전년보다 0.4%p씩 줄며 2019년 이후 내림세를 보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남학생의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은 고등학생(8.3%)이 중학생(2.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담배 종류별 현재 사용률은 일반 담배(궐련)가 3.3%로 가장 높았고 액상형(2.9%), 궐련형(1.6%) 순이었다. 현재 담배 제품 사용자 기준 최근 30일 동안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중 2개 이상을 사용한 분율은 61.4%로 2019년(47.7%) 이후 증가 경향을 보였다.

주중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남학생 253.9분, 여학생 293.2분으로 여학생만 12.8분 늘었다. 주말도 남학생은 전년과 유사(363.6분)한 반면 여학생(424분)은 17.5% 증가했다.

현재 음주율은 8.0%로 전년보다 1.7%p 줄었다. 남학생(9.8%)과 여학생(6.1%)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음주자 유사(363.6분)한 반면 여학생(424분)은 17.5% 증가했다.

‘위험 음주율은 최근 한 달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분율을 말한다.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도 감소했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

평균 시간은 437.5분으로 전년보다 22.4분 감소했으며 학습 목적 외 애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주중 186.7분·주말 295.4분)도 줄었다.

청소년이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은 25.7%로 전년보다 2.0%p 감소했다. 남학생은 21.7%, 여학생은 29.9%로 여전히 높았으나 지난해보다는 1.4p, 2.6p 줄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41.3%로 전년보다 1.0%p 줄었다. 남학생은 32.9%로 2.3%p 감소했지만, 여학생은 2명 중 1명꼴인 50.3%가 스트레스를 느꼈다. 전년보다도 0.4%p나 상승한 수준이다. 주관적인 수면 충족률은 남학생(28.3%), 여학생(16.9%) 모두 각각 1.2p, 0.4p 증가했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을 보면 남학생은 6.6시간, 여학생은 5.9시간이었다.

주중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남학생 253.9분, 여학생 293.2분으로 여학생만 12.8분 늘었다. 주말도 남학생은 전년과 유사(363.6분)한 반면 여학생(424분)은 17.5% 증가했다.

임상관 질병청장은 “최근 10년간 흡연과 음주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담배 제품 중복 사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 모니터링과 함께 신체활동, 식생활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성별, 학교급별 건강행태 차이도 지속돼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건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발표회’는 8일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하며 통계집 및 원서자료는 질병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서다은 기자

“고혈압 전 단계도 안심 못 해” 치매위험 16% 올라간다

혈압과 치매 연관성

연구 결과 발표



정상 혈압 범위보다 살짝 높은 ‘상승 혈압’(Elevated Blood Pressure) 단계에서도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이번 연구는 2024년 유럽심장학회(ESC)가 고혈압의 기준을 강화하며 새롭게 도입한 ‘상승 혈압’ 구간의 임상적 위험성을 대규모 인구 집단을 통해 입증한 첫 사례다.

이민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신경과 교수(교신저자), 정영희 교수, 김종우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수리학과 교수, 천대영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혈압과 치매 발생률과 위험도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정상 혈압 그룹에 비해 상승 혈압 그룹과 고혈압 그룹 모두에서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적 기간 동안 총 12만223건의 치매가 발생했으며, 이 중 76.6%가 알츠하이머병, 12.1%가 혈관성 치매였다.

정상 혈압 그룹 대비 상승 혈압 그룹의 전체 치매 발생 위험은 1.6% 증가했으며 고혈압군에서는 전체 치매 위험이 2.9% 유의하게 증가했다.

특히 뇌혈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의 위험도가 두드러졌다.

정상 혈압 그룹 대비 상승 혈압 그룹은 16%, 고혈압 그룹은 37% 더 높게 나타나, 혈압이 높아질수록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이 단계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했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40~64세 중년층에서 혈압에 따른 치매 위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중년 연령대에서 상승 혈압 그룹은 정상 혈압 그룹보다 치매 위험이 8.5% 높았고, 고혈압군은 33.8%나 높았다.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혈압 상승에 따른 치매 위험 증가가 더 뚜렷했다. 여성의 경우 상승 혈압과 고혈압 모두에서 유의한 치매 위험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남성에서는 고혈압 그룹에 서만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민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럽심장학회가 제시한 ‘상승 혈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실제 치매 위험 특히 혈관성 치매 위험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함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수축기 혈압이 120mmHg를 넘거나 이완기 혈압이 70mmHg를 넘는 단계, 즉 고혈압으로 분류해 치매 발생률과 위험도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정상 혈압 그룹에 비해 상승 혈압 그룹과 고혈압 그룹 모두에서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적 기간 동안 총 12만223건의 치매가 발생했으며, 이 중 76.6%가 알츠하이머병, 12.1%가 혈관성 치매였다.

정상 혈압 그룹 대비 상승 혈압 그룹의 전체 치매 발생 위험은 1.6% 증가했으며 고혈압군에서는 전체 치매 위험이 2.9%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심혈관 질환 학술지인 ‘유럽심장학회’(European Heart Journal) 최신호에 ‘혈압 범주에 따른 치매 위험: 대한민국 전국민 연구’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해당 저널은 유럽심장학회 공식 학술지로 미국심장협회 학술지(Circulation),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와 함께 세계 3대 심혈관 임상 저널로 평가받고 있다. 이우리 기자

행복한 동행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사명감 있는
교회/단체 환경!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행복한
동행

심리적 상담 치유 (예언의 말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고질병을 혼자 고심하지 말고 (한문으로)
“이름과 나이”만 알려 주시면 고목 나무에 꽃이 피어 인생길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게 됩니다.
성격, 사명, 출세, 성공, 실패, 건강, 병약, 단명, 장수, 가정, 자녀, 부모, 부부의 금실, 이혼, 위급한 사고, 말씀으로 기도 제복을 밝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고백 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했다.
고전4:10

송백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 6길 4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주소: 충북 영동읍 479-8번지 1건.
 - 토지: 2,756m² (833.69평)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a(40평)
 -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낷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경기 예술 신학원 학생모집

문화 전쟁의 시대 마귀 문화와 하나님 문화의 대결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대중화 하고 또한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술인을 배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경기예술신학에 모집을 목적에 둔다.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광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 석사(사회복지전공)
개신대학원대학교 (ph.D) 철학박사

철학박사

전 극동방송 드라마 성우 / 대한민국 연극제 최인훈작
한스와 그레텔(주연) / 쏘프트드라마, 이강렬 연출
출구없는 방 출연(주연) / 세익스피어 작, 오설표 출연등

학 과	연극선교학과
지 원 자 격	고졸이상학력
종 교	기독교세례자
모 집 인 원	약간영
원 서 지 원	25년 1월부터
개강및수업	수시모집
학 제	4년

토요일만 집중 수업 출연 후 목회자가 되기를 하면 개혁신학교 신학연구원에 입학함

지구촌복음방송

대표 장대수 목사 | 문의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6-2 현대프라자 4층 시흥 사랑의교회 내

일어나라 빛을 빛하라 이는 네 빛이 이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4:603)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매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교회성장을 위한 전국순회집회

-교회 성장의 갈급한 목회자와 교회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 위한 전국 순회 집회-

지 역	일 시	장 소	대표연락처
대전	25.12.12(금)-13(토)	대전 참소망교회(담임 박주에목사) 주소: 대전 중구 수침로 111번길 33	강성온 목사 010-2211.7139
서울 경인 강원	26.01.19(월)-20(화)	인천 김단비전교회(담임 박종민목사) 주소: 인천 서구 완정로 188번길 2길 12	이수화 목사 010.9407.7226
부산 울산 경산	26.01.22(목)-23(금)	부산 향기로운교회(담임 김양덕목사) 주소: 부산 사하구 윤공단로 14번길 62(다대동)	김양덕 목사 010.9155.0191
서부지역	26.01.26(월)-27(화)	태안 예일교회(담임 김순남목사) 주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샘골 4길 29	김순남 목사 010.6477.2827
충북 청주	26.01.30(금)-31(토)	청주총신교회(담임 염광섭목사) 주소: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02번길 69	염광섭 목사 010.4410.9115
전북 광주	26.03.05(목)-06(금)	완주 에멘교회(담임 양정옥목사) 주소: 전북 완주군 비봉면 다리설길 31	양정옥 목사 010.6542.2661
제주	26.03.20(금)-21(토)	제주 글로리아교회(담임 김홍석목사) 주소: 제주시 광양11길 2, 4층	이승우 목사 010.9969.6875
천안 충남 경기	26.04.13(월)-14(화)	천안 회복교회(담임 이종익목사) 주소: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길 3-12	박진우 목사 010.6314.3783

강사소개

- | | |
|--------|------------------------------------|
| 양정옥 목사 | 사)에장합동개혁총회장 / 성장교회예식법 |
| 곽윤관 목사 | 사)에장합동개혁직전총회장 / 행복목회사역 |
| 한영동 목사 | 사)에장합동개혁증경총회장 / 목회코칭사관학교/120명 자립교회 |
| 정해숙 목사 | 불교인 전도1년30명 / 전도훈련 |
| 홍지영 목사 | 영성훈련 / 부흥사 |
| 임동호 목사 | 목회 AI 활용법 / 찬양 |

주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혁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른신께 폐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어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 36,000자 토플,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지친 영혼을 위한 시편 산책

신간 '하나님, 오늘은 좀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힘이 들었습니다." 어찌 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속으로 삼켜 온 말일지 모른다. 괜찮은 척 웃어야 했던 날, 혼자서만 삽시간 눈물,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과 고단함이 밀려오는 밤... 이 책은 그런 이들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힘이 들었습니다〉는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는 이들, 그러나 믿음의 길로 빠져드는 이들을 위한 시편 묵상집이다. 시편의 디워처럼 애통함과 분노마저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려갈 때, 우리의 염려는 기도가 되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운다.

특히 저자는 삶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시편을 통해 "왜 나는 광야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에 귀 기울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불드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다시 불잡도록 돋는다.

이 책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위로를 전한다. ▲야인이 더 형통해 보이는 세상의 불공평함 ▲기도에도 즉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마음 등에 대해 다룬다.

그러나 저자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잊지 않으셨음을 강조한다. 각자의 짐을 맡긴다는 것은 잠시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가한다"는 뜻이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한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 복을 주시는 것보다 '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고백하게 만든다.

저자 역시 시편을 통해 발견한 믿음의 비밀, 곧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디워의 자세를 독자들에게 전한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눈물, 한숨이 결코 헛되지 않은음을 알려주며, 고단한 하루가 하나님께로 더 깊이 걸어가는 걸음으로 바꿔줄 바란다.

"하나님, 오늘은 좀 힘이 들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독자들의 마음이라면, 이 책은 조용히 다가와 그 곁에 앉아 함께 시편을 펼쳐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불들고 계심을 따뜻하게 일깨워 줄 것이다. 최승연 기자

12월, 작가들의 말말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어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있는데,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런 주님을 떠난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짜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도 주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김병렬 '히브리서에서 발견한 예수님'



다윗은 하나님 마음속에 간인된 VIP 같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너도 아신다"고 말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루를 완전히 망치기도 합니다.

실수한 일, 디투고 돌아선 관계, 스스로 부끄러운 말 한마디. 그날 밤, 그런 자신이 너무 싫어서 기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나는 네가 어떤 날에도 너를 사랑한다." 진짜 나를 찾는 것은 단순히 '자기 이해'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변하는 환경, 흔들리는 마음에도 무너지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의 '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나입니다.' 진짜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낸 이미지'가 아니라,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발견되는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조영민 '잃어버린 나를 찾습니다'

성경과 교리로 배우는

신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자녀 양육, 돈, 인간관계, 노년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룬 침착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출간됐다.

역사신학자이자 신학은 반드시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이성호 교수(고려신학대학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과 교리의 토대 위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구원은 한순간에 주어지지만, 성화는 평생을 살아내야 하는

여정이다. 저자는 성화의 길을 걷는 신자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들을 제시한다. 질문은 길을 찾게 하고 목표를 세우게 하며,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로 한 '올바른 질문들을 통해 신앙의 중심을 불들도록 이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현대인의 삶을 성경과 개혁주의 교리로 풀어낸 실천적 안내서라는 점이다. 결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며, 결혼관이 흔들릴 때 신자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자녀 양육은 언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세례와 가정 예배, 교회의 신앙 교육이 결코 부차적인 요소가 아님을 강조한다.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의 의미, 주일 성수의 '구별' 개념을 짚어주며 기독교 실천의 기준을 회복하게 한다. 인간관계, 언어,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도 교리적 균형을 잊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조언을 더한다.

돈과 물질의 문제는 '자유'가 핵심임을 밝히며,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몸, 결단, 공동체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성도가 성경과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막연한 믿음에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분명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책이다.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찾고 싶은 이들, 신앙과 일상이 고리된 것 같아 답을 찾고 있는 이들, 성화의 여정을 다시 점검하고 싶은 모든 신자에게 깊이 있는 길잡이가 되어준다.

신앙의 본질을 일상 속에서 다시 세우고 싶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책은 뮤직한 방향성과 실천적 통찰을 동시에 제공하는 귀한 안내서다. 최승연 기자

「AI 인류혁명」, '올해의 저술, 문체부 장관상' 수상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의 저서



기독교적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문명 방향을 제시한 안종배 회장의 저서 「AI 인류혁명」(박영사)이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저술,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급격히 변화하는 AI 시대의 문명대변혁의 방향을 제시한 이 책은 출간 2주 만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AI 시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도서"라며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하기도 했다.

「AI 인류혁명」은 인공지능 기술이 촉발한 거대한 문명대변혁의 흐름 속에서, 인간 존엄성과 인간다움의 가치를 지키며 미래 사회의 행복을 열어가기 위한 사람 중심 AI 혁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서의 인간 존엄성과 창조 목적을 지키는 AI 문명의 길을 제시한다. AI를 선용하여 인간 고유의 개성적 창의성 따뜻한 인성거룩한 영상윤리적 자유의지를 강화하여 AI 시대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AI 휴머니즘, K-소버린 AI, 사람 중심의 미래 문명 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안종배 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독교적 가치 안에서 AI 시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온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상"이라며, "AI는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인간다움의 역량을 확장하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회장은 "교회와 크리스천은 AI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가치관과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AI를 통해 예배·선교교육 사역을 더욱 창조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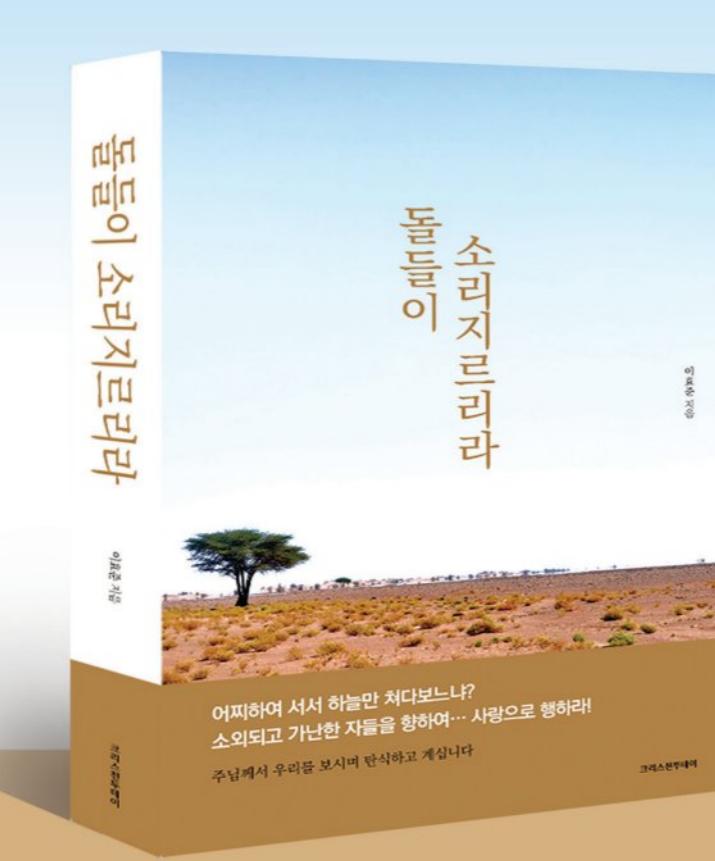
「AI 인류혁명」의 저자인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이 수상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미래학회

AI를 선용한 다음세대 교회 교육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죄는 전에 내가 좋아했던 습관, 한때 재미 있다고 여겼던 대화, 편하다고 느꼈던 관계 속에 조용히 스며든다. 예를 들면 은밀하게 반복되던 인터넷 중독, 관심받고 싶어 하는 과한 SNS 사용, 어디서든 인정받으려는 욕심 같은 것들 말이다. 이전에 그냥 내 성향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긴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다들 이 정도는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자기합리화가 시작된다. 그러나 보면 어느새 죄는 다시 삶의 중심을 차지하려 든다. 그때부터 다시 혼란스러워진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가 점점 무감각해진다. 죄는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둔감하게 만든다. 처음엔 짧았는데 그걸 몇 번 무시하고 나면 아젠 마음이 무뎌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전에도 이랬는데, 뭐 괜찮았잖나?」라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그게 바로 죄가 원하는 것이다.

김액 '나는 청년입니다'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갑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장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울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날새를 풀어 하소서 기독교 교회사 (2)

넷째: 하나님의 점진적, 단계적 역사 진행에 유의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때로는 태풍과 번개처럼 급진적으로 전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완만하고 또한 점진적,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져왔습니다. 기독교가 아담으로부터 출발되었지만 그로부터 2,000여 년이 경과한 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본격적인 진행이 시작되었으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부터 다시 2,0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정립시켜주신 성경과, 그 성경으로부터 정립되어져야 할 기독교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다시 2,0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독교의 본질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던 까닭에는 수많은 역사적 완만함과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역사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완만함과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역사들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인간들의 무지함과 아둔함 때문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조명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항상 어두웠으며, 하나님과의 섭리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진행에 절대 유의하여 기독교 역사를 함부로 왜곡하거나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보다 앞서 가는 만행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1장 역사의 출발



역사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살펴보면 언제나 인류 역사를 전제로 한 역사 연구가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우선으로 전제한 후 정치 역사, 종교 역사, 산업 역사, 문화 역사, 예술 역사, 전쟁 역사, 학문 역사 등등의 역사를 인류 역사에 적용하고 병행하여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출발을 언제나 인류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인류학자, 고고학자들이 고대 역사의 현장들을 발굴하는 목적도 인류 역사의 가장 최근원을 찾아내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출발은 언제나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출발은 역사를 창조한 창조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정립함에 있어 그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and are justified, and you profess your faith 'with your mouth' and are saved.
여기에서 'with your heart'와 'with your mouth'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 For : ~하기 때문이다

- justify : 아무 죄가 없음을 증명하다

- profess : 공언(公言)하다(여러 사람 앞에서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말하다)

- save : 구원(救援)하다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서 아무 죄가 없음이 증명되며, 또한 '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말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쉬운 문장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You believe 'with your heart'



시는 것이 되지 못하고, 인류 역사를 뒤쫓아 가면서 인류 역사의 진행에 맞추어 자신의 섭리 역사를 째어 맞추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역사의 정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거부하는 용서받지 못할 악행입니다.

역사의 출발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과 같이 역사의 중심 역시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은 3류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며,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기운이나, 정신이나, 운동력에 의해서 생겨나고 발전된 것도 아니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생물들로부터 진화되어 현재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목적에 의하여 작정되고, 계획되어, 창조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목적에 따라 진행되어져왔고 계속하여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중심은 당연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개념 하에서 인간을 모든 역사의 중심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인간이 스스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여 자체적으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의 정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피조 세계를 섭리하

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셨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통하여 자신의 피조 세계를 전개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입니다.

제3장 기독교 역사와 인류 역사의 관계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인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주역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역사의 중앙 무대에 인간을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들의 역사를 진행하고 그 인간들의 역사를 아우르시고 다음으로서 기독교 역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시공간에는 언제나 이미 인류 역사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음을 통하여 증명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시공간에 이미 인류 역사를 전개시키시어 그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좌, 준비, 예비, 보증, 변증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때가 이르매"라고 표현합니다. "때가 이르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를 진행하실 때 일반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조를 맞추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역사가 기독교 역사를 보좌, 준비, 예비, 보증, 변증하게 하실 때에 일반 역사의 진행을 조절하시어 때로는 빠르게 진행시키시는가 하면, 때로는 천천히 진행시키시어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입각하여 기독교 역사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 일반 역사를 함께 병용하고 적용하여 일반 역사들이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증명합니다.

제4장 기독교 역사와 하나님의 종들

기독교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에 의하여 출발하고 진행되지만, 기독교의 중심적 활동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여러 유형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각각 고유한 사명을 부여하시며, 또한 그 사명에 적합한 은사와 능력을 부여하시어 그들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종이라 함은 반드시 인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에는 국가를 비롯하여 가정, 민족, 직장 등등의 각종 조직 사회 영역들이 포함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교육, 과학, 철학, 상업, 공업, 문화, 예술, 체육 등등의 영역들이 포함되어지고,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또한 반드시 선한 종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한 자들을 들어 쓰시며 심지어는 사단까지도 들어 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정립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등용되어지는 여러 유형의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을 정리함에 있어서 그들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논증을 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개인적 신상이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에 대하여 쓰임 받았으며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과, 그들을 통하여 진행되고 결과 되어진 하나님의 섭리 역사만을 논증합니다. (계속)

찰스 스펠전의 아침목상, 열방선교단 제공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177)

로마서 14장 15절

15. If your brother is distressed because of what you eat, you are no longer acting in love. Do not by your eating destroy your brother for whom Christ died.

·If your brother is distressed : 만일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because of what you eat : 식물을 인하여
; you are no longer acting in love.
: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Do not by your eating destroy : 네 식물로 막게 하지 말라
·your brother for whom Christ died. :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 중요한 단어, 숙어

distress 근심, 고난, 고민, is distressed : 스트레스를 받는다. no longer~ : 더 이상 ~이 아니다. destroy 죽이다, ~의 목숨을 빼앗다,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소멸하다, 무효로 하다.
because of what you eat : 네가 먹는 것 때문에, 네가 먹는 것으로 인해
by your eating : 네 식물로, 네가 먹는 것으로
your brother for whom Christ died. : Christ died for your brother : 그리스도께서 너희(우리) 형제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리스도인 형제를 “망친다”는 말은 그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훼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다른 형제가 깜짝 놀라 우리에게 화를 벌컥 내게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를 망친 격이 된다.

카톨릭 신자들은 금요일에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말도록 카톨릭 교회나 학교에서 배웠다. 예전에 11장에서는 율법이 인정하지 않는 음식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들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롬 14:20-20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

계는 악하니라).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어떤 신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숙한 형제들이 이와 같은 음식들과 포도주를 삼가 성숙하지 못한 형제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8:8-13

8 식물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9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13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

8 But food does not bring us near to God; we are no worse if we do not eat, and no better if we do. 9 Be careful, however, that the exercise of your freedom does not become a stumbling block to the weak. 10 For if anyone with a weak conscience sees you who have this knowledge eating in an idol's temple, won't he be emboldened to eat what has been sacrificed to idols? 11 So this weak brother, for whom Christ died, is destroyed by your knowledge. 12 When you sin against your brothers in this way and wound their weak conscience, you sin against Christ. 13 Therefore, if what I eat causes my brother to fall into sin, I will never eat meat again, so that I will not cause him to fall.

에베소서 5:1-2

1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

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 Be imitators of God, therefore, as dearly loved children 2 and live a life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a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 해석

만일 식물을 통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막게 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6절

16. Do not allow what you consider good to be spoken of as evil.

·Do not allow what you consider good :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않게 하라

·to be spoken of as evil : 비방을 받지

▶ 중요한 단어, 숙어

consider 생각하다. “what you consider good : 너희의 선한 것”이 말은 ‘너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allow 목적어 to 동사~ : 목적어로 하여금 ~할 것으로 허락하다. be spoken of as~ : ~라고 언급되다. to be spoken of as evil 악으로 언급되는

“Do not allow what you consider good to be spoken of as evil” :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언급되어지게 허락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제자, 천국 백성이 된 자로서의 본분에 걸맞게 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들 중 한 가지를 제시한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근거가 떳떳하고 기준이 올바르며 동기가 순수하고 목표가 정당하다면 아무 도 우리가 행하는 일을 비방하지 못할

것인즉,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옳은 일을 하되, 그 일이 옳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우리를 정당하게 욕하지 못할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할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비방하더라도 절대로 자신들의 비방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구절 말씀의 요체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누가 비방하더라도 그 비방이 정당한 비방일 수가 없는 그런 선한 일을 하라”는 뜻인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하고 옳은 한, 그들이 뭐라고 비방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으신다. 정당한 비방이 않는 한 그들의 비방은 무고요, 거짓 고소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가 비록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열성이 앞서는 것은 주의할 일이다. 이것은 특히 갓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러하다. 갓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답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열성이 앞서기가 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알고 있는 지식이 형편없이 빈약해서 그야말로 젖먹이에 불과하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열성부터 내는 것은 경계망동하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지식이 없으면 열성도 자체를 줄 알아야 한다. 진리로 양육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갑에 따라 진리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람이 침착해지고 냉철해지는 법이다. 오히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열성을 내며 자칫 경계망동하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가급적 행동을 자제하고 언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고린도전서 10:27-33

27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해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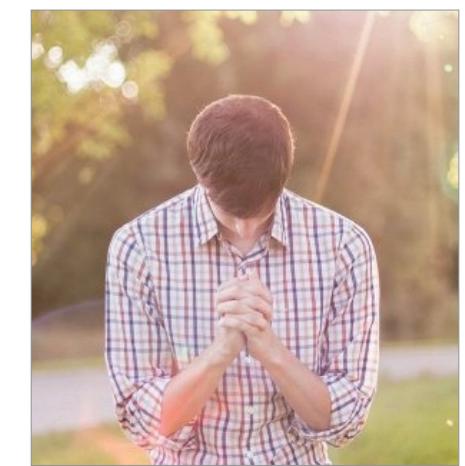
▶ 해석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백판기 목사(예수날사랑하심교회)

풍성한 농장

순종은 거룩함의 길



순종은 거룩함의 길입니다. 순종 자체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거룩하심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과 자신의 복된 본성을 거룩하신 자로서 충만하게 계시하시고 전달하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써,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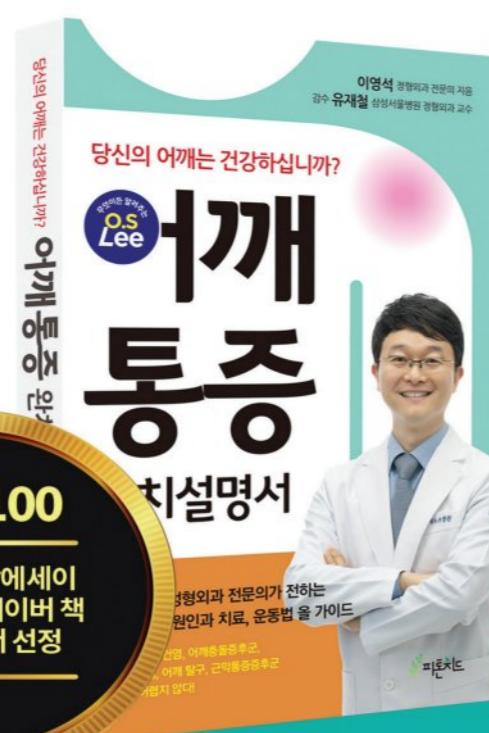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나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나는 거룩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의 모든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와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내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내면적인 가르침을 구하고 기다리십시오.

앤드류 마레이 「거룩,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중에서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한평우 목사
평생 자신을 자비하게 만드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체로 결심은 용두사미로 끝난다. 그 이유는 결단을 이행하는 일에는 큰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마에스트로 J 선생의 일화가 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네 살 되던 해부터 그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너무 어려 스스로 피아노 의사에 올라갈 수 없었기에, 어머니가 번번 들어 의사에 올라놓아야 비로소 피아노를 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절대로 그를 의사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네 살 때니 금방 피아노 치는 일에 싫증이 났고, 그래서 내려가고 싶어졌으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의사에서 내려줄 때까지는 말이다. 올거나 심지어는 떼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스스로 피아노와 친구가 되는 길밖에

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린 나이에 이웃 친구와 놀면서 즐거움을 느껴야 하는데, 피아노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느 날 내가 교회 피아노의 건반을 세어 보았더니 흰 건반이 52개, 검은 건반이 36개였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건반을 두드려야 했고, 그것을 두드릴 때마다 반응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다양한 소리를 주의 깊게 들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그 소리들을 키답아 듣게 되었고, 그 소리와 깊은 사귐을 가졌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일이었고, 그는 곧 그 소리를 평생의 반려자로 삼아도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어린 나이에 깨달은 행복과 기쁨이자 결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이었다. 그는 예순이 넘어서까지, 네 살 때 깨달았던 음악의 세계에 빠져 행복을 누리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음악에 끝까지 살아가니, 음악이 그에게 충분한 보답을 해주었다는 사실이다.

성 프란시스는 감옥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 감옥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걸은 변한 것이 전혀 없었으나, 그의 마음은 달라졌다. 새로운 세상을 깨닫았기 때문이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 우리의 힘과 열정, 그리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 프란시스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살던 12세기 말 이탈리아는 약한 도시국가였으나, 프랑스는 유럽의 최강국이었다.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경험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프랑스라는 의미로 프란시스(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단순한 생각으로 지어준 그 이름이, 8백 년이 지난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네나 할 것 없이 붙여주는 이름이 되었다. 얼마 전 이탈리아에서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고 싶은지에 관해 설문조사가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이 '프란체스코(남아는 프란체스코, 여아는 프란

체스코)'라고 응답했다. 그뿐인가? 교황들도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모른다. 이탈리아만이 아니라 서양에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프란체스코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프랑스를 기억하게 하려 했던 단순한 의미의 이름, 그 이름은 이 시대 온 세상을 아우르는 놀라운 이름이 되었다. 이름의 의미, 새삼 그것은 실로 대단한 것이 아닐까 싶다.

성 프란시스는 그때부터 '하늘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가슴은 용광로처럼 끓어올라 더는 평범한 삶을 추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성서의 말씀대로 따르기 시작했다.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헬벗은 자를 만나면 자신이 입고 있던 고급스러운 옷을 기꺼이 벗어 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은 상인인 아버지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계기가 되었다. 성 프란시스는 집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는 먼 프랑스를 오가면서 땀 흘려 번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다. 이런 가치관의 충돌은 가정을 불화의 현장으로, 또는 싸움터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란시스는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하늘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프란시스는 집에 있는 비단과 질 좋은 옷감을 말에 신고 16km 떨어진 폴리노(Foligno)로 갔다. 그리고 그 모든 물건과 말까지 팔았다. 돈을 손에 쥐게 되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깊이 고민하며 걸어가던 중 아시아에 가까워져 올 때 길옆에 하물어져 가는 교회를 만나게 되었다. 그 교회는 성 다미아노(S. Damiano)를 기념하여 세워졌지만,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 교회에 들어가니 한 가난한 사제가 있었다. 그는 사제의 손에 입을 맞춘 후, 지나고 있던 돈 전부를 주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제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유는 얼마 전까지 프란시스가 자주 유분방한 삶을 살던 청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끈질긴 설득을 했지만, 사

제는 프란시스의 부모를 두려워하여 돈만은 절대로 받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 프란시스는 돈을 경멸하는 마음으로 창턱에 돈을 던져 버렸다. 그는 돈보다 더 좋은 자혜를 소유하고 싶어 했고, 은보다 더 보배로운 하늘의 것을 얻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돈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돈은 우리 곁에서 실질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다.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비굴해지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부모나 친척, 심지어는 부부까지도 상관하지 않으려 하는 세상이다. 상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머뭇거리지 않는 예도 있다. 그러나 프란시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돈의 막강한 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절제하게 돈과는 거리를 두려고 결심했다.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

◆ 한평우 목사

로마 한인 교회 담임목사로 35년째 시무하시고, EMI 유럽 목회자 연구원 책임 및 원장, 유럽 Koste 후원회장, 디모데 선교회 회장 및 디모데 로마 선교 아카데미 학장을 맡고 있다.

찬양의 감격이 있습니까?



김남수 교수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낱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친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2~47)

침례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형윤 목사님께서 침례신학대학교 채플에서 설교 중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우유 또는 이유식을 먹는 정도의 믿음을 가진 어린 성도들에게 물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의 설명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잡수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라고 한 끼 안부를 묻는데, 우리들의 인사

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의실 안에서, 교회에서, 길가에서 “구원 받았습니까?”가 우리들의 인사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를 걱정하는 인사가 영생을 염려하는 인사로 변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헨리 바넷(Henry Barnett)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3단계
 ●첫째 단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
 ●둘째 단계,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단계.
 ●셋째 단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은 단계.

위의 1-2단계를 통과하고 마지막 단계인 전입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꿈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 중심이라면 마지막 단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사업을 해도, 가정주부가 집안에서 가사 일을 해도 근본

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직업에 있지 않고 교회의 일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찬양의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일에 있을 때, 찬양에 집중하지 않고 판전을 피우게 됩니다. 찬양에 집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찬양의 감격이 있습니까?” 인도자 자신이 예배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회중에게 찬양의 감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노랫말의 의미를 깨달으며 노래할 때 진정으로 찬양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해야 합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멋진 인사를 합시다. “구원 받았습니까?”, “찬양의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부르는

것은 습관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찬송 부르는 태도를 볼 때 마음이 답답한 경우가 이따금 있습니다. 인도자는 찬송을 시작해 놓고 자신은 찬송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기울거리며 성도들의 자리를 살핍니다. 찬송을 부르며 이어서 부를 찬송을 찾느라 찬송가를 뒤적거립니다. 성경 말씀을 찾는 인도자, 설교 원고를 살펴보는 사람, 무언가 준비가 안 됐는지, 습관인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찬양집을 뒤적거리는 지휘자는 어떻습니까? 찬양대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회중찬양에는 관심이 없는 찬양대원 설교시간엔 습관적으로 졸고, 가운데 품으로 생각하는 찬양대원은 어떻습니까? 회중은 이런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찬양 한 모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임재, 시와 그림

대한제지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기독미술인 연말 나눔 전시 '12월은, 동·동친구전' 개최

성탄의 온기를 담은 '동·동친구전' 3회째… 13일까지 열려

기독미술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모았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이화기독미술인협회, 로고스문화예술선교회의 협찬으로 마련된 제3회 '12월은, 동·동친구전'이 2일 서울 송파구 엠아트센터(송파롯데마트 2층) 12관에서 개막했다. 전시는 13일까지 열린다.

'동동친구전'은 매년 12월 기독 작가들이 이 착한 가격의 아트상품과 소품을 선보이며 어려운 창작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는 동료 작가들에게



다양한 아트상품이 진열된 전시장 모습. © 주최 측 제공

작은 응원을 건네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일 오후 2시에는 전시장에서 오

프닝 행사가 열린다. 드레스 코드는 빨강

과 초록이다. 먼저, 녹미 합창단의 연주와 참여작가들이 직접 만든 아트상품을 착장하고 무대에 서는 패션위킹이 열릴 예정이다. 감사예배는 정두옥 부회장(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의 성탄찬송 인도, 장원철 목사(로고스문화예술선교회)의 성탄메시지와 축도 등으로 드린다.

이어질 2부 순서에는 신미선 회장(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이화기독미술인협회)의 인사말, 참여 작가 소개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통한 작품 판매 및 자선 일일찻집 등을 통한 수익금 전액은 기독미술인 창작후원에 사용된다. 백선영 기자

모노드라마 '침묵', 성탄 시즌 대학로에서 다시 무대에 오른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엔도 슈사쿠 원작 '침묵'

15년 연속 공연



성극 '침묵'에서 1인 무대를 채우는 배우 김명중의 극중 모습. ©극단 단홍

극단 단홍이 일본 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대표저서 <침묵>을 원작으로 한 모노드라마를 22일부터 25일까지 대학로 '공간 아울'에서 선보인다. 김명중 배우가 15년째 단독으로 무대를 지켜온 이 작품은, 고난과 배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깊이 있게 담아내며 그동안 전국 350여 회의 공연으로 많은 교회에 강한 울림을 남긴 바 있다.

모노드라마 '침묵'은 신앙 박해가 극심하게 17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로드리고는 배교했다는 스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으로 향한다. 그는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신앙을 지키려 애쓰는 이들을 만나지만, 혹독한 박해 앞에서 순교와 배신, 두려움과 절망이 교차하는 현실을 목격한다. 신도들이 차례로 처형당하는 침혹한 광경 앞에서 그는 가슴 속 질문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연출을 맡은 유승희 감독은 원작의 주제를 살리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결국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신앙적 해석을 담아냈다.

단홍은 창단 이후 사회문제·신앙고민을 다뤄온 여러 작품을 제작해왔다. 청소년 뮤지컬 '스트리트 가이즈', 손숙 모노드라마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 등을 연출해 온 유승희 감독은 이번 작품을 '예배에 예술을 접목하는 실험'이라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연은 평일 오후 7시 30분, 공휴일 오후 4시와 7시에 열린다.

백선영 기자

제10회 진주크리스마스트리 참빛문화축제 개막

참빛과 나눔으로 하나되는 겨울빛 향연, 진주대첩 역사공원서 첫 개최

경남 진주시는 최근 진주대첩 역사공원에서 '제10회 진주크리스마스트리 참빛문화축제'를 공식 개막했다. 올해 축제는 처음으로 역사공원에서 진행되며 새로운 공간적 매력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신선한 겨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행사는 진주시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진주

크리스마스트리 참빛문화축제위원회가 주관했다.

개막식은 따뜻한 감성을 담은 공연들

로 시작됐다. 동요 '아빠 힘내세요'의 작곡가 한수성 씨가 무대에 올라 친숙한 선율로 관객들의 감정을 이끌었고, 이어 '봄비트 밴드'의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더욱



진주크리스마스트리 참빛문화축제 개막식 현장의 모습. ©진주시

13~14일, 20~21일, 24~25일, 27~28일에는 매일 오후 6시부터 역사공원에서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연말 분위기를 한층 더해줄 예정이다. 장지동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일산광교회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강단 연동(김주용) 30 TV강단 한마음(김승용)	00 오정현 목사의 운전한 은혜로 10 C채널 스페셜 제1회 아가페국제교정 학술대회 2부 개회식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예원-정은주 30 생명의 말씀 세한-주진	20 힐링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111회) 50 [말씀] 회중부 목사(남서울교회)(390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새예덴의 언약 (소강석)(915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75회) 50 리비아초 워십
	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한국중앙-임석순 50 생명의 말씀 용인천-신윤수	10 신의 2주 20 행복한 쉼터 LA생명번역(강준민) 50 행복한 쉼터 왕성(길나영)	30 휴먼네컷(51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07회) 40 친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7회)	00 포도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문훈 목사
	8:00 20 다음세대 둘째, 한국교회가 한다(4회) 30 CTS 창사 30주년 특집 한국교회를 논하다 한국교회와 함께, 100년을 향하여	20 솔직한 새끼양들의 토크쇼 저 새끼양 40 다큐 더 로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충훈 목사(구덕교회)(153회)	00 하나님의 음성(100회)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339회) 출애굽기 37강	00 비전메시지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 30 비전메시지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9:00 (편성 없음)	00 사랑의 메시지 여의도침례(국영호) 30 선교의 땅 탄자니아를 기다	00 CGN 비전특강(662회) 40 Q&A 107 소요리문답(60회) 50 신약 세계로 오십시오(10회)	10 새롭게하소서(11036회) 이장원 배다해 부부 2부	00 밀음의 리액션(8회) 경기도 수원시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10:00 0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위대한 유산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우리들의 지식살롱 12세	20 [특집 다큐멘터리] 땅 끝의 증인들(1회)	00 CBS NEWS 10 20 더 뮤직(138회) 50 살롬 쌀롱(17회)	00 강연소 통(39회) 대인관계에서의 실제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과 극복사례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1:00 00 [특별방송] CTSWEEK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50 김지연의 중독전쟁(22회)	00 행복한 쉼터 옥길(임재호) 30 행복한 쉼터 제주동충(박창건)	1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652회) 50 예수동행일기(5회)	00 유포원(691회)	00 소문난 성경교실(594회) 김영근 목사 첫 번째 4강 30 선교는 지금(58회) 생터성경사역원 이애실 원장
	12:00 00 CTS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 대치순복음-한별	00 GOODTV 뉴스 30 오방이어 금요성회	10 바이브 필름 <요한복음>(16회)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214회)	00 TV강단 구세군대한본영 30 TV강단 만리한성결(조준철)	20 말씀의 창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 50 말씀의 창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대구신관-권성수/문대원 30 [CTS 30년 믿음의 명작] 내 영혼의 찬양 실만한 물가로	00 예배실황 꿈의(김학중)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240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55회)	00 잘 믿고 잘 사는 법(313회) 2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32회)	20 성지가 좋다(507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8부 50 오정현 목사의 운전한 은혜로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2390회) 50 내가 매일 기쁘게 개그우먼 정경미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충조 목사(갈보리교회)(354회)	00 말씀의 힘 신일(배요한) 30 새롭게하소서(11368회) 배우 김아라 1부	00 TBC 궁금(40회) 치유와 도우심 4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04회)
오후	15:00 40 [특별방송] CTSWEEK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30 선교의 땅 나가사카를 기다	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번역교회)(643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4395회) 창세기 4강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원주중부-김미연	00 사랑의 메시지 분당선교(윤귀현) 30 행복한 쉼터 송전(권준호)	00 하윤조 목사의 요한복음을 강해(74회) 40 바이브 필름 <요한복음>(16회) 50 [말씀] 박원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621회)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4회)	00 내 삶의 행복(184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수령로의 시간 성령집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김신욱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특집 10 행복한 쉼터 군포성산(김자현) 4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기다	3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400회)	10 친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82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964회) 50 행복다이어리(585회)	00 말씀의 창 아산큰빛교회 김성권 목사 30 말씀의 창 LA생명번역교회 강준민 목사
	18:00 00 백석의 시간 장종현 목사 30 주성민 목사의 주님길 50 신앙에세이	10 백석대학교 진리의 시간 장종현 40 솔직한 새끼양들의 토크쇼 저 새끼양	10 THE NEW 하늘빛방기(7회) 50 2025 선교한국대회 (세상의 회망 예수)(5회)	00 TV강단 악대(송규의) 30 TV강단 진주초대(이경은)	00 글로벌 신앙토크쇼 웃즈업(40회) 결혼보다 동기?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19:00 00 찰스태니 목사의 주님의 순길 30 생명의 말씀 용인기쁨-정의호	00 사랑의 메시지 군포체일(권태진) 30 사랑의 메시지 새운해(황형택)	(표기 없음)	00 TV강단 길튼(채성렬) 30 TV강단 베다니-(곽주원)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심 김하나 목사
	20:00 00 생명의 말씀 은평성-유승대 30 생명의 말씀 포도나무-여주봉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10 예배실황 지구촌(서울)	20 레디온(161회)	00 CBS 비전특강 박관 목사의 성서적 전인치유 50 CBS 교회소식(1027회)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성지가 좋다(507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8부
	21:00 00 과천교회 75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사)갓 하늘숲 과천교회 이영기 50 CTS뉴스 W	10 행복한 쉼터 전주남성(안현관) 40 GOODTV NEWS	00 더시랑의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390회) 출애굽기 37강 50 성경풀기 이것이 궁금하다(87회)	1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36회)
	22:00 20 The Ships : 치유의 항해(1회) 50 위대한 밭길을	30 사랑의 꽃 필 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고향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6회) 50 예수동행일기(5회)	00 CBS NEWS 10 20 유포원(690회)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43회) 20 금요성령집회 제자광성교회
	23:00 00 윤호균 목사의 CTS금요찰아예배(1048회)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591회)	30 이단 사이렌	10 J.D. 그리어의 성탄 메시지(2025)(1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브 필름 <요한복음>(16회)	20 CBS 금요찰아예배 (세아멘교회)(877회)	10 금요찰아예배 수영로교회
	24:00 00 Calling GOD(2390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30 우리들의 지식살롱 12세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2023 KGMLF(5회)	10 새롭게하소서(11036회) 이장원 배다해 부부 2부	00 세이에인 찰아예배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저녁	1:00 0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1회)	00 신의 2주 1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00 2025 획복축제 <온천>(24회) 4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176회)	00 산위의마을 말씀 (김영준)(265회) 50 사랑의 말씀 (오정현)(1028회)	00 비전메시지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50 리비아초 워십
	2:00 00 TV찬양예배 한성교회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526회)	40 이영훈 목사의 말씀과 함께(587회)	00 말씀의 창 필그림선교교회 양춘길 목사 30 오정현 목사의 운전한 은혜로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27회)
	3:00 00 7000미라클 스페셜 50 힐링송	1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Craig Groeschel's A Better Way(3회) 3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95회)	10 새롭게하소서(11370회) 손성락 전도사	00 선한목사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다워 목사
	4: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2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30 CTS 경건예배 분당성사/명성훈 45 광선희 목사의 예수송악의 삶	00 비전설교 분당우리(이찬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extenxion innovation

의 SK
기술

iPhi

[에너지의 무한공식]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이노베이션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SK 이노베이션